

2016 서울시 마을기업 이야기

2016 서울시 마을기업 이야기

발행 2016년 12월
펴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편집/원고 라현운 · 이은주
사진 김성현 · 이우기
디자인 (주)인디엔피 www.indnp.com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전화 02 353 3553 팩스 02 383 3533
홈페이지 sehub.net
Copyright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2016 서울시 마을기업 이야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서울시 마을기업! 도시 변화를 위한 주춧돌입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육구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설립된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은 도시 변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고자 합니다.

서울시
마을
기업
이야기

2 0 1 6

SEOUL
COMMUNITY
BUSINESS
2016

CONTENTS

포토스토리 마을기업이 생존하려면...

Special	2016 서울시 마을기업을 말한다	
기획	서울 공동체를 살리는 힘 '마을기업'	08
인터뷰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서울형 커뮤니티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필요	14
	김성섭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이사장 > 2017년, 서울 마을기업 전환이 필요한 시기	17
좌담	2016 우수 마을기업 대표자 3인의 만남 > 마을기업 아직은 빈칸, 서울의 희망을 그려보자	20
현장	2016 START, 마을기업!	
	도시마을방역협동조합 > 도시 해충 문제, 이제 도시마을방역협동조합으로	34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 > 청년이 좋아하는 일, 마을에서 한번 해볼까	37
	광진담쟁이협동조합 > 지역 여성들을 위한 담쟁이 잎 같은 존재	40
	문화촌사랑방 솜씨 > 솜씨 좋은 카페공방, 마을사랑방을 꿈꾼다	42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 > 전통문화 지키는 장인들의 반가운 연대	45
	로하스협동조합 >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잇는다	48

포토스토리 마을기업, 서울의 문제를 부탁해!

탐방	도시에서 마을기업으로 사는 이야기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 카페에서 마을로의 확장	54
	협동조합 성북신나 > 표류하던 청년, 마을에 닻 내리다	58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 땀한 곳 푸는 약손, 마을 속으로	62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 > 마을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66
Q&A	마을기업 설립, 알고 준비하자!	70
창업도전기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 마을에서 먹고 살기에 도전하다	76

포토스토리 마을기업은 이다.

부록	서울시 사회적경제	84
	지원 기관	90
	서울시 마을기업 DB	92

2016

서울시 마을기업 이야기를

펴내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근 5년 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불평등, 생태 파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 속에서 양적 성장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지역을 거점으로 하거나 가치와 문제를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서울의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커뮤니티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 기존과는 다른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함께 사는 삶,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인 마을기업은 3,400여 개의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중 기업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가장 자발성이 높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5년 8월 말부터 마을기업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서울시 마을기업의 상을 정립하고 적합한 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책은 그 성과와 서울시 마을기업의 현재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돌아보고 서울시 마을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리하는 '기획', 현장 기업과 지원 기관 대표들의 목소리로 2017년 마을기업의 비전을 들여보는 '인터뷰', 우수 마을기업 대표들의 활동과 성공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좌담', 2016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새내기 기업들과 우수 현장 사례를 담은 '현장 탐방', 마을기업 설립 안내와 창업도전기, 서울시 마을기업 전체에 대한 간단한 정보 등 2016년 서울시 마을기업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다양한 형태로 담았습니다.

대도시에서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순환이라는 쉽지 않은 도전을 하고 있는 현장과 지원 기관, 서울시의 노력을 담은 이 책의 이야기가 마을기업에 대해 알고 싶은 이들, 지역에서 변화 만들기를 시작하는 이들, 마을기업에 적합한 정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와 실마리를 전하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봄을 기다리며 지역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사회적경제, 그 변화의 중심이 될 마을기업을 그려봅니다.

마을기업이 생존하려면...



“마을기업이 생존하려면 ‘마을’과 ‘기업’ 중 ‘마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관계망 만드는 일은 엄청나게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 힘든 시절을 견디는 힘은 결국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박영민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상임이사

2016

서울시 마을기업을

말한다

누군가는 기업 문을 닫았다. 또 누군가는 '마을'과 '기업'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 분주하다. 마을기업에게 2016년은 매서운 겨울바람 같았다. 그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조금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거대 도시에서 마을을 형성하기가 힘든 현실에서, 마을기업의 활로를 찾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의 마을기업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이 대목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마을기업에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 꼬물꼬물 시작된 마을의 관계망들이 조금씩 엮이면서 마을기업이 이러한 관계망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주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2016년 서울시 마을기업의 주요 화두, 그리고 2017년의 과제를 살펴본다.



서울시 마을기업

기획	서울 공동체를 살리는 힘 '마을기업'	현장	2016 START, 마을기업! 도시마을방역협동조합 > 도시 해충 문제, 이제 도시마을방역협동조합으로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 > 청년이 좋아하는 일, 마을에서 한번 해볼까 광진담쟁이협동조합 > 지역 여성들을 위한 담쟁이 잎 같은 존재 문화촌사랑방 솜씨 > 솜씨 좋은 카페공방, 마을사랑방을 꿈꾼다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 > 전통문화 지키는 장인들의 반가운 연대 로하스협동조합 >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잇는다
인터뷰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서울형 커뮤니티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필요 김성섭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이사장 > 2017년, 서울 마을기업 전환이 필요한 시기		
좌담	2016 우수 마을기업 대표자 3인의 만남 > 마을기업 아직은 빈칸, 서울의 희망을 그려보자		



서울 공동체를 살리는 힘 '마을기업'

- ☞ 문턱을 낮춰 누구나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 ☞ 아프기 전에 주민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주는 **동네병원**
- ☞ 장애인의 사회진출과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운영하는 **카페**
- ☞ 믿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제공하는 **엄마표 간식 가게**
- ☞ 주민 생활문화공동체와 소모임을 인큐베이팅하는 **대안 공간**
- ☞ 공연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전래동화를 교육하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극단**

대도시 서울에서 이런 공동체 활동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앞서 열거한 곳들은 이미 서울에서 활동 중인 마을기업들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비해 조금은 낯선 '마을기업'에 대해 알아보자.

...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마을기업'

2010년 하반기,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 주도로 시작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출발한 마을기업의 정의는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쉽게 말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의 요건으로는 크게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꼽을 수 있으며, 올해로 6년째를 맞는 마을기업의 수는 전국적으로 1,500여 개(2016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전북 부안군 내 귀농자와 청년 및 노년층, 다문화가정의 협력으로 가공차, 엿기름, 청국장 가루 등 11개 품종의 허가를 획득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마을기업인 <백련농장>, 공공 디자인을 통해 대학과 동네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커뮤니티 카페 운영, 공연, 영화 상영, 요리 등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활동을 펼치는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마을기업으로 손꼽힌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지역성이 상대적으로 살아있는 지방에서는 마을기업이 작은 지역 단위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효자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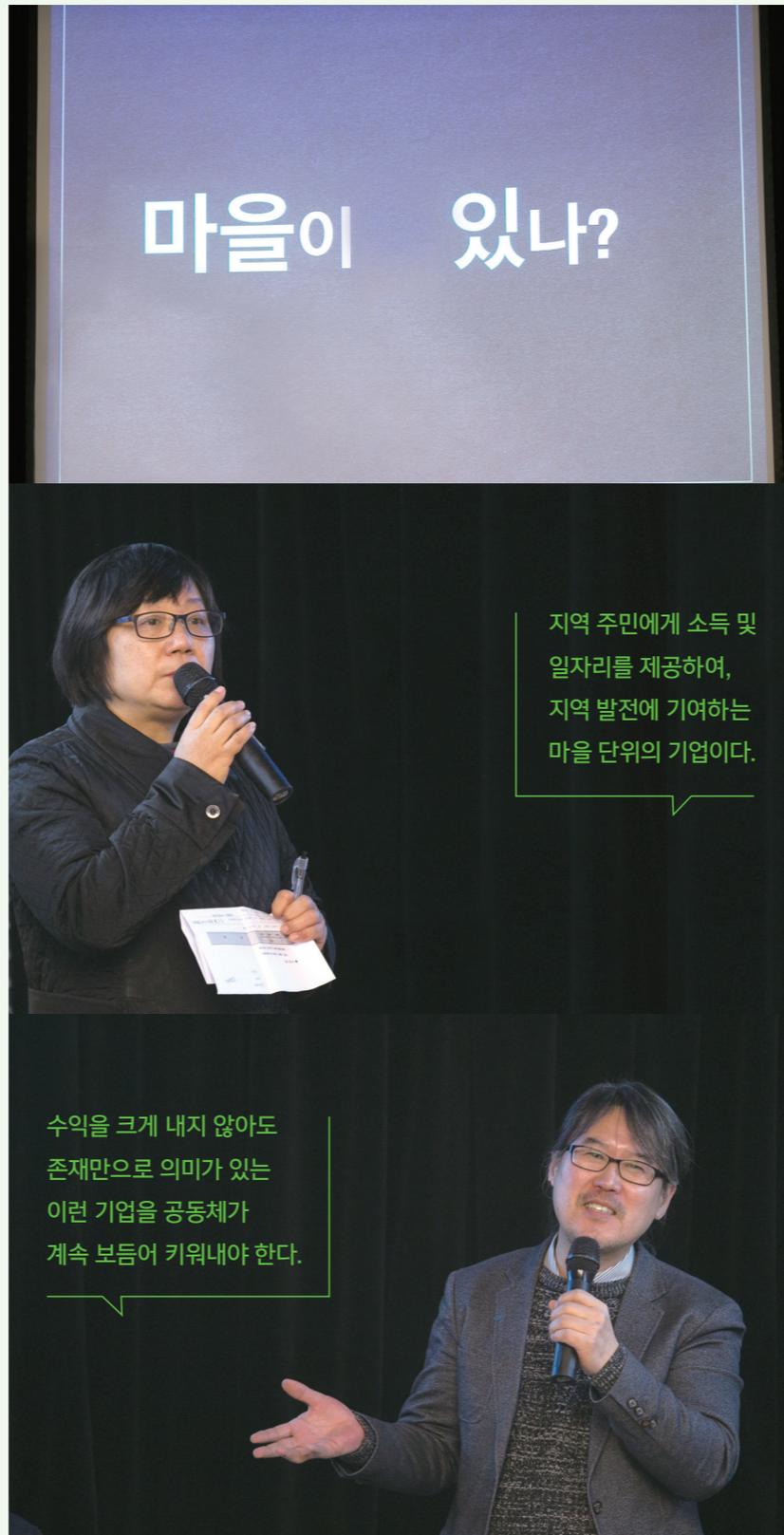
해외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마을기업 사례들이 있다. 일본 도쿠시마 현에 위치한 '가미가쓰 마을'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마을의 '이로도리' 기업은 공해가 없는 산골 마을의 자원과 마을 주민의 대다수가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요리 장식용 나뭇잎, 꽃 등을 만드는 츠마모노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뒀다. 노인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고 관리·출하까지 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을 진행하는 등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쓴 결과 일본 전체 츠마모노 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마을의 고용 및 가정 수익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일본 커뮤니티비즈니스 종합연구소장인 호소우치 노부타카 씨는 완주군에서 진행한 국제포럼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주민 주도의 인간성, 사회성, 경제성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만의 마을기업 모델이 필요해!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에 비해 마을기업이 크게 확장되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다. 서울시에서 현재 활동 중인 마을기업은 100여 개다. 전국의 마을기업이 1,500개에 이르는데 비하면 그 수가 적다.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에는 2012년 9월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 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해결하는 마을기업 육성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칸막이 문화가 강했던 대도시에서 '마을', '공동체'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다. 더욱이 서울은 공동체를 지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농촌 및 지방도시와 달리, 공동체의 개념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과 달리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도 마을기업 확장의 한계를 가져왔다.

김혜숙 민들레위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방은 90% 이상이 그 지역만의 자연자원이 있고 지자체와도 연계가 잘 되어 있어 마을기업을 하기에 적합하지만 서울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인적·공간·서비스 자원뿐이다. 그래서 교육, 카페, 공방 등 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기존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 정책이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서울에서 마을기업이 활성화 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마을기업 전문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물적 지역 자원의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는데, 이 같은 선정 기준이 돌봄, 유통 등의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서울시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 내에서 필요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 서울의 마을기업, 위기일까? 기회일까?

지난 수 년 간 많은 수의 마을기업이 문을 닫았다. 이러한 마을기업의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는 현장과 주변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시 마을기업이 지역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존재의 가치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약화된 대도시 환경, 사업 경험의 부족, 열악한 자본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의 부재는 한계를 절감하게 한다.

서울시는 마을 주민들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여 마을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돕기 위한 인큐베이터 제도와 서울의 높은 임대료를 보완하기 위한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초기 마을기업의 성장을 주도하기도 했으나 제도의 폐지로 이어졌다.

그러나 마을기업의 위기 속에서 주목할 부분 또한 있다. 폐업한 서울시 마을기업의 대부분이 제도 시행 초기에 설립된 곳들이라는 점이다. 마을기업의 상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 지원이 종료된 후 자립 기반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정책 하에서 서울시 마을기업은 지역 혹은 동종 업종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필요를 해결하고 있다. 지역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의 기회를 만들고,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서울을 넘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자립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 맞춰 서울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도 변화했다.

2015년 8월부터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마을기업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마을기업 지원 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센터는 기존 지원 정책의 앞뒤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마을기업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왔다. ▲보다 건강한 지역기반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설립 전 교육 내용을 개선하고 주민참여 워크숍, 프로젝트비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등 예비 주체 발굴/육성 과정 정교화, ▲행정자치부 지원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회계·홍보·마케팅 분야의 실무지원단 구성을 통한 마을기업의 실행력 보완, ▲마을기업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마을공동체기업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는 전략모델의 발굴-개발-시범사업 과정을 통한 표준모델 개발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해당 부처의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른 부문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자치부 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다. 법적 근거의 확보는 국비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의 지속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기업들의 공감도가 높다.

••• 2017 마을기업의 약진을 꿈꾸며

현장기업과 지원 기관, 외부 전문가들은 위기 속에서도 서울의 마을기업이 서울의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유의미한 존재라는 것에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낸다.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는 “마을기업이 커뮤니티이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으로서 수익도 창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겹겹이 받다보니 충분한 성과를 못 냈고, 그 결과 패배주의가 형성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울에서 마을기업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기업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마을기업은 여전히 그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김성섭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이사장은 “지금의 시장 시스템에서 소비자로 존재하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살리려면 어렵다. 주민 스스로가 생산자이자, 소비자, 투자자가 되는 마을기업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 본다. 수익을 크게 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는 이런 기업을 공동체가 계속 보듬어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마을기업에 대해 앞으로는 기존과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마을엔 카페 이미경 대표는 마을기업을 운영하려면 단기간에 승부 볼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을 담그듯 시간이 목어야 하는 것이 마을기업이라는 것.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지방과 달리 지역성이 열린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마을기업이 숙성되는 시간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와 함께,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커뮤니티에 대한 확장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구 천만 도시 서울, 공동체는 죽고 더 이상 마을을 얘기하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동네를 이루고 함께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지만 더더욱 쉽지 않은 시절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마을기업이 지향하는 이상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만은 아닌 듯하다.

서울형 커뮤니티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필요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 기관으로서 센터의
2016년을 돌아본다면
어떤 지원을 펼쳤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보유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마을기업에 통합지원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어 2015년 8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로부터 지원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력 운영 중심의 지원 정책의 변화, 서울시의 공간지원금 중단 등으로 지원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환경에서 센터는 마을기업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새롭게 찾아야만 했어요. 이에 전수 조사를 통해 마을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수립했죠. 당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기업 중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이 30%가 채 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센터에서는 커뮤니티로 관계를 만드는 활동을 기반으로 마을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전 단계 지원과, 행정자치부의 2년 지원 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돕는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해다 보니 현장 기업들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를 말하긴 어려웠어요. 다만 보다 개선된 지원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또한 당사자 연합회와 함께 한 지역 기반 기업을 만들기 위한 신모델 연구, 서울의 동 단위에서 확산 가능한 전략 사업을 찾는 연구조사와 모델 개발 등 기획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2017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

**마을기업의
현황 조사를 했을 당시,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지역 기반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
모델을 찾아본다면
어떤 곳을 꼽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잘 하는 곳들이 많지만 대도시인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되는 마을기업을 꼽으려면 마포구의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과 동작구의 마을닷살림협동조합, 금천구의 민들레워커협동조합 등을 꼽을 수 있어요.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은 지역의 공간을 기반으로 교류하던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드러내면서 그것들을 실제 서비스로 만들어내고 확장시켜 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어요. 생활 속 에너지 소비에 대한 고민을 주부와 청년들이 햇빛발전과 같은 대안에너지를 통해 지역순환투자 비용으로 만들어내는 동작구의 사례나 쓰레기 악취가 심했던 낙후 마을을 깨끗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시민활동에서 시작해 공동텃밭을 가꾸고 솜씨 좋은 어르신들과 함께 만든 소품을 판매하여 마을의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는 금천구의 사례는 도시 내 노인복지, 일자리, 환경 등 지역 문제를 여러 세대가 함께 풀어낸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해요. 최근에는 사회적기업과 같은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지역에 청소, 주차 관리, 노인이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역관리회사 모델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어요. 마을기업 혼자만으로 한계가 있던 일들을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주민과 만나고 규모화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마을기업이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그 성공의 전제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역 사회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마을기업, 정책 활동 등 어떤 활동도 가능하다고 봐요. 주거 대책을 잘 마련한 파리, 도쿄, 런던 등이 그런 경우인데요. 반면 천만 시민을 말하던 서울의 인구는 점점 줄고 있어요. 지원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정주하지 못하는 서울이라면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마을만들기 활동에 노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유럽은 도시재생 정책에 주민 주거·교육 등을 융합한 모델이 활발해요. 지역 기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과 시민참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역이 살아있어야 해요.

서울이 정주하는 도시,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가 되려면 여러 계층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갈등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며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정책이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마을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2017년 지원 기관으로서 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궁금합니다.

2017년에는 마을기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마을기업에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인재들을 연결하고, 경영자문 결과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또한 지난해 이화여대 기숙사 반대운동을 펼쳤던 주민들과 빈방빈집 등 주민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마을관광 프로젝트라든지, 마을 단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두부 프랜차이즈 사업, 마을급식 사업 등 서울시 동 단위로 퍼뜨릴 수 있는 기획 창업 모델을 본격적으로 개발/확산하고 주민들의 충성도를 높여내고자 해요.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가 제안한 도시형 마을기업의 신모델 연구 및 지원 사업도 계획 중이고요.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센터뿐만 아니라 당사자 조직인 연합회와의 협력과 활동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시 마을기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이나 스스로를 설명해 낼 수 있는 가치를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

녹색치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마을기업, 여전히 유효할까요?

물론 유효합니다. 주민들이 소비자이면서 투자자가 될 수 있고, 높은 융합력을 자랑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 대도시에서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행정에서도 창업 중심의 성과보다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준비되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써야 해요. 또한 대도시에서는 지역 사회로만 커뮤니티를 규정하기 보다는 관계망을 통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비즈니스(장애인 가족 커뮤니티, 공정여행 커뮤니티 등)로의 확장도 고민되어야 해요. 특히 서울은 기존 공동체가 깨지고 급격한 산업·도시화를 거치며 성장한 대도시라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상상이 필요합니다.

2017년, 서울 마을기업 전환이 필요한 시기



김성섭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이사장

.....>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는 서울시의 마을기업들(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선정)이 함께 모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협업을 통해 개별 마을기업의 미션 수행과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자발적이고도 자치적인 협동단체입니다. 기존에 전국마을기업협회 소속 서울협회가 있었지만, 마을기업 정책을 서울 지역에 맞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을기업들이 모여서 2013년부터 준비모임을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 연합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50회 가까이 모임을 가졌으니 서로 신뢰를 쌓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셈이죠. 처음에는 연합회를 만들겠다는 목적보다는 힘드니 서로 정보를 나누고 협력 사업을 기획하다가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서 2015년 5월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현재 약 38개 회원사들이 함께 하고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제언은 물론, 탐방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

마을이 없는 도시 서울에서 마을기업이 가능한가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자, 마을기업연합회 이사장으로서 서울의 마을기업의 현재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은 대표적인 소비 도시고 마을이 형성되기 어려운 대도시예요.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행정자치부에서 정의하는) 마을기업이 서울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마을기업은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우리들은 커뮤니티의 필요 주체로서 마을기업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시장이 제공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고 공급하고, 소비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서울에서 마을기업을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한 자연자원이 없는데다 마을 기반도 취약해 공동체를 살리면서도 매출을 올리려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죠.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수익성보다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추동하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2013년부터 서울형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해 왔는데요, 2015년부터는 이마저도 지원이 중단되고 이후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마을기업의 폐업률은 42.3%에 달하고, 70% 이상의 기업이 연매출액 1억 원 미만으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죠.

.....>
당사자 조직으로부터 위기라는 말을 들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마을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현장의 고민을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렵다는 건가요?

마을의 성장이라는 게 서로 엮여가며 이루어지는 건데... 몇 년 사이 서울의 마을이 굉장히 성장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지만 사실 이제 점이 막 생겨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직 그 점들이 이어져 선이 되고 면이 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거죠.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를 토대로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서울 마을기업의 성장 환경은 매우 척박합니다.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분 중에 마을공동체에 관심이나 비전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25개 자치구별로 고루 안배를 하다 보니 준비가 미흡한 마을기업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마을공동체와 상관없는 마을기업은 영세자영업자 또는 골목 상점들과의 별다른 차별성이 없어요. 더불어 현재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사장으로 몸담고 있는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90명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협동조합으로 인식하지 마을기업이라 생각하는 조합원은 거의 없어요. 운영 주체들에게조차 마을기업이 지원 제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듯해 안타깝습니다.

.....>
그런 위기감 속에서 지난해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산하에 마을기업활성화TFT가 구성되고 12월에는 '서울시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린거군요.

네 맞습니다. 연합회에서는 당사자 조직으로서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마을기업의 새로운 방향을 세우기 위해 마을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의 사회적경제 영역과 마을공동체 영역이 마을기업의 대안을 찾는데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하며 TFT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현장과 행정, 중간지원조직, 연구자 그룹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합의하는 자리가 12월 12일에 진행된 '서울시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였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된 부분은 서울에서 지난 5년 간 마을공동체와 주민관계망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고, 이러한 성과를 이어서 수행할 경제 단위로서 '마을기업'의 역할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공동체 이익회사)처럼, 공공조달, 지역개발, 공공서비스사업을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마을공동체기업의 상을 설계하고, 기존 사회적경제 기업이 이를 수탁/운영할 것을 정책적으로 요구하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마을기업 지원 제도의 개선보다는 서울에 필요한 마을기업의 개념과 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이날 토론회는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였다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 출발선이었습니다.

.....>
2017년 연합회 활동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마을기업의 양적 성장과 속도전 보다는 단계적 전략을 통해 공감을 확산하며 정책화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연합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올해는 TFT 운영을 지속하되 전문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 마을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수행할 조직을 선발해서 시범 사업을 실천해보려 합니다. 연합회가 개별 마을기업에게 큰 도움은 못주지만, 서울 마을기업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에서 마을기업의 존재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시장 시스템에서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란 어렵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제공하거나 그런 기업을 공동체가 계속 보듬어 키워내야 해요. 수익을 많이 내지 않아도, 존재하기만 해도, 지속가능하기만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을기업'이라 생각해요. 그 마을기업을 보거나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을 만들어 얼마나 팔고 있느냐 아니라,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살피는 거라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2016 서울시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3개 기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면 생리대 하나로 시작해 5억여 원의 연 매출을 올리며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목화송이협동조합', 지역에서 펼친 여성환경운동이 씨앗이 되어 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민들레워커협동조합', 돌봄 공동체로 시작해 지역에 필요한 돌봄·교육·제조를 모두 고민하는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까지 3개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도봉구, 금천구, 광진구 서울 끝자락에서 달려온 이들의 모습에서 분주한 마을기업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혜숙 민들레워커협동조합 이사장, 한경아 목화송이협동조합 이사장, 박꽃별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3인이 서울 도시에서 좌충우돌하며 몸으로 느낀 마을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들려주었다.

작은 소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

2016 우수 마을기업 대표자 3인의 만남

마을기업 아직은 빈칸, 서울의 희망을 그려보자



한경아
목화송이협동조합 이사장

박꽃별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혜숙
민들레워커협동조합 이사장

아직은 생소한 마을기업, 주민들 속으로

...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뜻 깊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을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2016년 진행된 핵심 활동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한경아 목화송이협동조합은 10여 년 전 한살림 조합원 몇몇이 면 생리대의 우수성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 '워커스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 조합원들이 필요한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대표도 되고 직원도 되는 형태의 공동체)로 시작한 사업을 2013년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마을기업이에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목화송이의 주력 사업은 면 생리대 보급과 교육이지만, 현재는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자 재봉틀로 제작가능한 장바구니, 에코백, 앞치마 등 20여 개 품목으로 확대해 제작 판매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해 도봉구 지역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난해는 약 5억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박꽃별 저희는 2013년 12월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어요. 돌봄 공동체로 아이를 함께 키우던 부모들이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구상하다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어요. 평생교육원 인가를 받고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를 진행하고, 과일청 등 건강한 수제 먹거리 제조 판매, 그리고 교육공동체를 고민하며 마을학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서비스 등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이 세 가지 사업의 기반을 잡아가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2016년에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고 법인이 되면서 세 가지 사업 각각의 법령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돌봄은 영유아보호법, 교육서비스는 평생교육법 및 학원교육법, 제조에 대한 각각의 법이 있기에 무수한 인가를 받는 일이 만만치 않았죠. 올해는 이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풀어갈 것인지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될 듯해요.



... 세 곳 모두 2016년을 숨 가쁘게 달려오셨네요. 얘기를 들으니 마을기업에는 '마을'과 '기업' 두 가지 정체성이 모두 담겨져 있는데,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활동할지가 늘 고민일 듯해요.

김혜숙 민들레워커협동조합은 2004년부터 금천구에서 취약한 지역의 환경개선활동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환경교육 등을 10여 년 간 해오다 마을공동체사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마을 만들기라는 말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였는데, 금천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활동했죠. 그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거리'라는 걸 알았어요. 왜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냐 하면, 경력이 오래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의 체력과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가 적당하기 때문이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2013년 협동조합을 만들고 2014~2015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올해로 5년째 접어들었어요. 자본금도 적고 매출도 미비하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을 지속해오다 보니 지난해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청 내 공정무역 매장을 운영하는 첫 사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금천구청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사례라 협치모델 1호이기도 하죠. 공정무역 매장에서는 로컬 생산품을 판매하고, 매장 앞에서는 원데이클래스를 열어 지역 여성들이 직접 지갑, 면생리대 등을 만들면서 생활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나도 디자인하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직접 디자이너가 되어 패션쇼에 참가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매출이 높지는 않아요. 생산 판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활동이 팔팔하다 보니 그래요.

한경아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마을과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출을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모두 잘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기업을 부각하면 공동체성이 있느냐 묻고, 공동체에 중점을 두면 매출이 왜 이렇게 좋지 않느냐고 하니 마을기업가들은 늘 딜레마에 빠져요.

김혜숙 일반 기업은 효율성이 우선이지만, 마을기업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경제활동으로 푸는 곳인 만큼 공동체를 우선으로 해요. 물론 생산에 집중하면 매출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지역공동체를 고민하며 활동해온 마을기업가들은 태생부터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덜 먹고 덜 가져가자 주의예요. 애초 '행복한 일터·삶터·쉼터'가 슬로건이니 공공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효율성이죠.

... 마을기업을 얘기할 때 공동체성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마을기업과 지역 주민들 간 접점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어떻게든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경아 도봉구에서 창동이라는 지역에 죽어있는 공간을 사회적경제 매장으로 만들어 운영한지 3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민들은 뭘 하는 곳이나 물어요.(웃음)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매장에서 주로 손님 응대를 하는데 사회적경제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배치되니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에 대해 설명은커녕, 물건 파는 정도 수준이죠. 결국 답답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에요.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까워요. 좀 더 실속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간혹 도봉구 마을기업 1호로 우리를 소개하긴 하지만 주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기존 시장 물품이랑 차별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김혜숙 비슷한 인식인 것 같아요. '기업' 앞에 '마을'이 있다 보니 나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 활동을 할 때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주는 물건 값의 일부가 어려운 이웃들의 약 값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요. 무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우리를 마을기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요. 그렇게 주민들과 한 달에 몇 번은 만나서 접점을 찾으려 노력해요. 또한 매장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홍보지 비치 공간을 마련해 홍보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 장들을 우리 스스로 자주 만들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꽃별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하는 곳인지 의심을 많이 했어요. 당시로서는 마을기업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이라 설명하기도 힘들었죠.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음알음 소개 받아 모인 분들에게 거의 원가 수준으로 강좌를 열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입소문이 나고 조금씩 우리에게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사라졌어요. 지역네트워크 조직들의 힘이 커질수록 주민들이 마을기업에 대해 알아가는 장이 더 늘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광진구에는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있는데, 광진구 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80~90%가 가입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연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힘이 커졌어요. 마을기업은 사실 그 규모가 미미해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는데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조금씩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주민들과 한 달에 몇 번은 만나서 접점을 찾으려 노력해요.”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조금씩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격려와 신뢰도 중요하지만 내부 자정 능력 길러야

... 지난해 서울시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운영과 이번 선정 경험에서 보았을 때 마을기업의 주요 성공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한경아 지난번 우수 마을기업에 신청했다 떨어졌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매출도 높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서 기업으로는 모범적이지만 공동체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도봉구 내에서 보다 다른 지역구에 일감이나 행사가 더 많아 지역에서 활동이 저조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우수기업 신청을 준비하면서 마을기업으로서 정체성을 다시금 고민했어요. 올해는 도봉구 내에서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더 접점을 만들어 보자고 마음먹었죠. 가장 먼저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안에서 다양한 체험 등을 생각하고 있어요.

박꽃별 사실 선정되고 나서도 우리가 진짜 우수 마을기업일까 생각했어요. 경험도 짧고, 외부 활동도 잘 못하고, 육아도 병행하다 보니 다들 정신없이 일해왔거든요. 그냥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는 생각에서 모이게 되었고, 좋은 먹거리를 고민하다 다른 아이들도 함께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수제 먹거리를 만들어 팔게 되었고, 경력단절된 엄마들이 함께 모여 뭐든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교육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며 모여 한 일들(돌봄, 교육, 제조,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모으니 서울시에서 정의하는 마을기업이 성립되더라고요. 취미공동체를 잘 구성해서 운영해온 게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반면 “너희들 뭘 하는 곳이나”는 얘기도 자주 들어요. 올해는 주력상품을 발굴하고 현재 12~13가지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교육서비스도 다른 형태를 고민해 볼까 해요.

김혜숙 우리는 두 기업에 비해 매출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높이 산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며 재생, 환경, 쓰레기, 여성, 도시농업 등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거든요.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필요하면 십시일반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공공성, 투명성, 협동성을 고려하며 활동해 온 것들이 인정을 받은 게 아닐까 해요. 자랑 같지만 그러다보니 금천구 여러 부서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해요.

“마을기업으로서 정체성을 다시금 고민했어요.”



... 마을기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박꽃별 사회적경제 기업은 존재 자체가 재무적 가치라 하잖아요. 우리는 유지 자체가 목적이예요. 유지하면서 좋은 일도 하는 것이라. 매출이 높아야 직원들 급여도 주고 기업 운영도 하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것 같아요.

한경아 물론 우리가 매출로 평가받기에 매출도 중요하지만 마을기업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매출에만 열을 올리다 보면 일반 업체와 다를 바가 없어져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인드 교육을 하는게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장에서 착한 가격을 유지하려 노력해요. 마을기업 물건을 사니 저렴하면서도 참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이번에 수익이 조금 나서 처음으로 직원들과 보너스를 나눴더니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떡이나 꿀을 사서 돌리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고, 이래서 마을기업 해야하는구나 싶었어요.

김혜숙 협동조합은 그야말로 이 시대 살아있는 생물이예요.(일동 웃음)
그 조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애국자죠. 왜냐? 각종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으로서 사업 유지를 위해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경력단절 여성과 취약계층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을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지속가능한 가치실현을 위해 조합원들이 함께 가기 위한 노력과 격려, 신뢰도 중요하고 내부의 자정 능력도 꼭 필요한 듯해요.



... 대도시에서 마을이 있나, 지방과 달리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서울에서 마을기업이 가능하냐는 얘기들도 많습디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울에서 마을기업을 운영하기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요구하는 수준은 높죠.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을 듯 합니다. 더불어 서울시에 바라는 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혜숙 사실 마을기업은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마을 단위가 살아있는 지방에 적합한 모델이에요. 지방은 90% 이상이 그 지역만의 자연자원이 있고 지자체와도 연계가 잘 되어 있어 마을기업을 하기에 적합해요. 하지만 서울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인적·공간·서비스 자원뿐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카페, 공방 등 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지 않고 한계가 뚜렷하죠. 사업 소재의 한계가 있지만 협동조합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니 그걸 먼저 인정해줘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 다중이해관계 구성원이예요. 이런 조합의 경우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기에 정량적 평가가 맞지 않아요. 그에 맞는 다른 평가를 해줘야 해요. 협동조합 유형과 형태, 도시형이나 지역형이나에 따라 평가가 달랐으면 해요.



그리고 너무 우리끼리만 어울리고 챙기는 폐쇄성을 깨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갈등은 거기서 많이 나오기에 그걸 깨는 것부터가 협치라 생각해요. 특히 사회적경제는 민관 협치가 중요한 만큼, 공공에서도 이 분야 전문가가 생겨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주면 좋겠어요.

한경아 서울형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 내 중복되는 업종이 많다 보니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어요. 카페, 공방도 많고 우리 같은 친환경제품 제작업체도 많아서 판로 개척 과정에서도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활의 경우 인건비가 워낙 낮아 가격 경쟁이 안 되고, 또 경쟁하다 보면 너희는 잘나가는 기업이니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요. 서울시에 바라는 게 여러 지원이 많지만 너무 많은 기업을 홍보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몇 팀을 선정해 집중 지원을 하고, 그곳들이 잘되어 나가면 또 새로운 기업들을 지원하고 이런 방식이면 좋겠어요.

박꽃별 마을기업을 만들면 초기 사업비 지원이 많은 편이에요. 몇 시간 되지 않는 심사만으로 진정성 있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데 초기 씨드머니로 너무 많은 비용을 지급해요. 더욱이 2개월 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짧은 기간 내 결과보고를 하라는 건 그야말로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혜숙 맞아요. 저도 선정한 후 유예기간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원이 끝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기업만 지원해주는 거죠. 진짜 우리 마을에 필요한 니즈를 찾고 서로 합의를 해나가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 말이에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이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지속가능한 공동체사업의 유지와 확대, 공공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는 곳을 선정하여 지원을 해주는 거죠.

“중복되는 업종이 많다 보니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어요.”

“지원이 끝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끈기있게 밀고 나가는 공동체를 지원해줬으면 해요.”



지역 문제 해결 절실함으로 시작해야

... 어려운 길이지만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선배 기업으로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자기 필요성이 있고, 몸과 마음을 단단히 한다면 어려움이 닦쳤을 때 견디는 힘이 돼요. 그게 공동체고 마을에 필요한 거라 봅니다.”

“그렇게 각자가 절실함이 있는 일을 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김혜숙 몸과 마음이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다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각오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저는 가끔 스스로를 ‘마을기업에 발등 짚힌 여자’라고 표현해요. 가끔은 내가 두 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같아요. 내가 균형을 잡지 않고 바퀴를 돌리지 않으면 쓰러지는 상황인거죠. 뒤에 보조바퀴 두 개만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갈텐데 싶지만 경력단절 여성분들과 함께하다 보니 쉽지는 않아요. 총대를 맨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한 마을기업 사례인데요. 일본의 퇴직자들이 승용차를 이용해 동네 할머니들을 병원에 태워다 드리는 일이예요. 각자 가지고 있던 차를 개조해서 5명이 사업을 시작했죠. 일본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에게 기대는 걸 원치 않기에 이런 사업이 통했어요. 젊을 때보다 급여는 적지만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하다 보니 그들 또한 자기 일에 만족했어요. 그걸 보며 우리도 정말 마을에 필요한 걸 모아서 고민해봤으면 싶었어요. 자기 필요성이 있고, 몸과 마음을 단단히 한다면 어려움이 닦쳤을 때 견디는 힘이 돼요. 그게 공동체고 마을에 필요한 거라 봅니다.

한경아 지원금을 보고 마을기업을 사칭하는 곳들이 있는데, 지원금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평소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좋은 거, 평생을 하고 싶은 일이면 시작하라고 해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면생리대 보급운동을 하고 싶어 시작한건데 운 좋게도 대표가 되고 지금에 이르렀어요.

박꽃별 마을기업을 해보고 싶다고 간혹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제일 먼저 절실함이 있냐고 물어요. 대부분 우물우물하세요. 보통 자영업자들은 자기 돈을 투자하기에 죽기살기로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힘들다고 봐요. 저도 아이 셋 키우면서 처음에는 많이 우울했어요. 남편이랑 똑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이 키우며 허덕이는 사이, 남편은 어느새 저만치 가있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는 힘들어도 사회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껴요. 저희는 돈을 벌어도 대부분 기부를 해요. 아이들에게도 엄마는 장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업을 운영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잘하는 대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발전하는 게 보이고 아이 잘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 길로 가고 있다 믿어요. 그렇게 각자가 절실함이 있는 일을 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이 큰 울림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얘기해보고 마쳤으면 합니다.

한경아 사실 오늘 와서 마을기업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같이 얘기 하다 보니 앞으로 잘하면 희망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마을기업은 희망인 듯해요. 그리고 마을기업은 평생교육이에요. 저도, 우리 직원들도 마을기업을 하면서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박꽃별 저에게 마을기업은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빈칸이거든요. 아직 주변에 정체성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걸 봐도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만 가능성도 많기에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게 마을기업이 아닐까 해요.

김혜숙 마을기업은 '미래의 복지'라 생각해요. 아까 할머니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거리라 했는데요. 여성들이 마을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하기에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들 모습에서 저의 미래를 봐요. 우리 마을에서 일터, 쉼터를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준비를 하고, 나중에는 이곳에서 포장하는 할머니로 남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려면 이 기업이 꼭 유지되고 앞으로 더 커져야겠죠.

... 오늘 얘기를 듣다보니 힘들지만 꼭 마을에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활동하는 분들의 긍정적 에너지가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마을기업이 단절된 도시 서울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다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2016 시작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두려운 일이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긴 여행이기 때문이다.

마을기업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선 이들은
어떤 고민에서 마을기업을 시작한 걸까? **START,**

마을기업! 2016년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6개 팀의
활동과 2017년 계획을 들여보았다.



도시마을
방역
협동조합



강북
청년자립
협동조합



광진
담쟁이
협동조합



문화촌
사랑방
솜씨



북촌
공예마을
협동조합



로하스
협동조합



도시 해충 문제, 이제 도시마을방역 협동조합으로

도시마을방역협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마길 24, 1층
www.tpcc.co.kr 070-4120-6781

- > UV LED 사라세니아 포충기 및 바퀴벌레 먹이트랩 페스트랩 제조 판매 사업
- > 해충방제소독 사업 > HACCP 컨설팅 사업

바퀴벌레, 개미, 모기 등 도시에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해충들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개인이 약을 사서 박멸하기엔 한계가 있고, 전문업체를 부르려니 비용이 부담스럽다. 이런 대도시 주민들이 겪는 해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마을기업이 바로 '도시마을방역협동조합'이다. 더욱이 오랜 기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함께 해오던 이들이 각자의 기술력을 모아서 마을 환경개선에 나섰다. 사실은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기업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도시마을방역협동조합은 해충방제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마을기업입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정과 사무실은 물론, 각종 사업장과 대형 시설의 소독방역 작업을 최고의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도시와 마을, 자연과 사람, 위생과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KFDA(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된 친환경적 약제를 사용하며 조합의 발전과 함께 강서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해충방제서비스 사업(주택·학교·공공시설 등 현장 해충방제서비스, '해충방제 프로젝트 1+1' 취약계층 기부 방제사업), 해충방제용품 개발생산 판매 사업(UV LED포충기, 바퀴벌레트랩 제조판매, 지역자활센터 위탁조립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감 나누기), 해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콘텐츠 제공('벌레이야기' 출강 및 포충기 제작 체험프로그램), 식품위생환경 HACCP 컨설팅 사업(공장 및 시설의 HACCP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는 주택 밀집 지역이자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위생·복지·일자리·노인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산적한 지역입니다. 강서구에서 오랫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오며 친분을 쌓았던 사람들이 각자의 기술력을 모아서 마을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창업하기로 했고, 많은 토론과 지역조사를 거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충방제 전문기술과 식품위생 HACCP 전문기술을 모아 2014년 12월 2일 도시마을방역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지금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일반적인 사회 문제를 고민하던 직장인들이 2009년부터 등산·독서모임 등으로 시작해 '담장(談場)'이라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며 다져진 인맥들입니다. 식품유통업을 하는 사람, 건축설계사, 음식점 영업, 보험설계사, 벤처사업가, 컴퓨터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몇 사람과 지역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나섰던 것이 창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은 소모임과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2013년 처음 마을기업에 도전하게 되었고, 몇 번의 도전 끝에 2016년 마을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창업 후
가장 보람될 때와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매월 취약계층 가정에 무료 방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충방제 프로젝트 1+1(일명 해방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하며 조합원들이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문을 두드려도 한참 지나서야 열어줄 수 있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소독방역작업을 해드리면, 깨끗해졌다고 좋아하시며 따뜻한 음료수 한 잔을 내미시는데 이럴 때는 힘든 것도 잊게 됩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특별한 에피소드 보다는, 글자 그대로 '마을기업'으로 지역민들에게 인식되고 싶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언제나 도움을 청하면 달려가서 함께 해결해주는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이런저런 고민거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웃기업으로 인식되고 싶습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에
필요한 지원은...

마을기업의 두 가지 화두인 '마을'과 '기업'을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느낌은 마을공동체적 요소에 더 많은 방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면 시장 경제 속에서 매출 실적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마을기업의 영업력과 홍보력을 지원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판매 지원에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신규기업으로서
2017년 계획은...

그 동안 진행해오던 지역 내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며, 2017년에는 매출 증대로 지속가능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조합원 간의 신뢰도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을기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마을기업은 보따리 장사꾼입니다. 갈 때마다 이야기를 풀라고 난리고, 나올 때마다 뒤통수가 뜨겁습니다.



청년이 좋아하는 일, 마을에서 한번 해볼까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39길 29, 4층(수유동)
02-998-0209

> 합주실 및 공간 대여 > 녹음
> 음악 교육(보컬, 드럼, 베이스기타, 통기타,
퍼커션, 피아노 등)

우리 마을에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작당모의를 하는 청년이 있다면? 생각만으로도 즐겁다. 마을 단위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청년 세대들에게 '마을'은 단어조차 낯설다. 게다가 여기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서울 대도시지 않나.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강북구에 등지를 튼 청년협동조합이다. 청년, 음악, 마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그들은 어떻게 마을에서 먹고 살고 소통해나갈까.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그들의 실험이 점점 궁금해진다.

기업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은 이름 그대로 강북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 적당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다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이라는 단어로 포괄되는 청년 및 지역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현재는 2016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유리콜라보'를 운영 중입니다. '수유리콜라보'는 본인이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하며 마을에 남고자 하는 청년 뮤지션들에게 음악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취미생활이 사치처럼 되어버린 마을주민들(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적 취미를 가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유리콜라보는 이 같은 음악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합주실 및 공간 대여, 녹음, 음향장비 대여 등의 사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서울시 강북구를 거점으로 자라온 청년들이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는 없을까?', '왜 우리 마을은 잠만 자고 떠나는 동네가 됐을까?', '내가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마을에서도 계속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작은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실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청년 뮤지션들과 강북 주민들이 가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 음악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픈파티를 하고 운영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철거공사부터 인테리어까지 직접 진행하다보니 이것저것 지연이 됐고, 본격적으로 음악 교육과 공간 대여 사업을 진행한 것은 10월부터입니다.

지금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교회나 학교에서 만나기도 했고, 프로그램 참여자로 만났다가 함께 일 하게 된 사이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청년커뮤니티공간 '청춘행성209'에서 청년활동가로 만나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누고 작당을 모의하다가 마을기업에까지 도전하게 됐습니다.

창업 후 가장 보람될 때와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수강료로 월 공간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적자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가장 힘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조직의 수익을 높이고,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과 동시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가치를 돈에 휩쓸려 잃을까 걱정하는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니뭐니해도 한 달 넘게 손수 공사를 했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나 나올법한 25톤 트럭에 방음벽돌이 한가득 실려 왔을 때, 승강기 없는 4층 건물 꼭대기까지 우리가 직접 올려야 될 놈(?)들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다 같이 카메라를 들어 그 웅장함을 담아내며 즐거워했던, 그 아이러니한 날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에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인 애로사항(초기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을 착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장벽을 낮추되, 사업성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면 좋겠습니다. 또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에 대한 시스템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든 확실한 답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스템이 정립되어 실무자들 또한 명확하게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신규기업으로서 2017년 계획은...

큰 목표는 우리 마을을 보전하면서 젊게 살리려는 기업이자, 우리 마을에 오래 계셨던 어르신들보다도 더 마을을 아끼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목표는 2017년 상반기 수강생 100명 이상, 월급 150만 원 이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두 가지로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마을기업은 '씨 발아'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자립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112'입니다. 마을에 대한 애착을 사업을 통해 자수하면(풀어내면) 광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여성들을 위한 담쟁이 잎 같은 존재

광진담쟁이협동조합

서울시 광진구 독성로 635, 2층
02-447-1800

> 마을학교 강좌 > 마을교사 양성
> 케이터링 > 파티 공간 대여

마을기업의 상당수는 여성, 그리고 카페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광진구에 자리 잡은 광진담쟁이협동조합도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고민하며 북카페로 처음 사업을 시작해 작년에는 협동조합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그야말로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기업이다.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는 이름에 얽힌 스토리처럼 광진담쟁이협동조합은 지역 사회 여성들을 위한 '담쟁이 잎'과 같은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기업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광진담쟁이협동조합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창구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역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 운영, 진로직업 탐색과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 탐색으로는 마을 강사를 양성하여 관내 학교와 단체에 파견하고 있으며, 창업프로그램에 의한 케이터링 사업단과 브런치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우리는 광진구를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을기업으로, 광진구 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기업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시작은 2012년으로, 지역 여성들에 의한 마을 북카페로 출발했고, 2016년에 광진담쟁이협동조합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던 지역 여성들이 여성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후
가장 보람될 때와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보람된 일은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이 우리 사업을 통해 자존감을 찾으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반면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직원 5명이 희미한 희망의 등불에 의지해 앞으로 나가야 하는 때 순간이 힘듭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없는 살림에도 사회와 지역을 잊지 않고 함께 하려는 저희 협동조합은 매월 어린이 생일파티와 분기별 지역 어르신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공되는 음식은 저희 사업장의 음식인 스파게티, 케익, 샐러드, 피자 등입니다. 이 낯선 음식에 즐거워해주는 분들을 만나서 엄청 좋습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에
필요한 지원은...

서울시의 마을기업 사업으로 한 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기에 먼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상근 활동가 인건비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활동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작은 지원금이 있다면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씨앗이 될 듯합니다.

신규기업으로서
2017년 계획은...

마을기업으로서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경제적 자립을 이뤄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 한 해를 열심히 보냈기에 그 밑거름으로 2017년 작은 싹을 틔우고 싶습니다.

마을기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광진담쟁이협동조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쳐 눈물과 웃음이 끊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진담쟁이협동조합입니다.



솜씨 좋은 카페공방, 마을사랑방을 꿈꾼다

문화촌사랑방 솜씨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2길 10(홍제동)
02-394-0509

- > 카페 사업
- > 교육 사업(천연제품수업, 목공수업, 도예수업)

취업시장에서 소외 받아온 어르신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힘을 모았다. 마을의 어르신은 커피를 내려 파는 바리스타로, 마을 여성들은 천연제품이나 목공·도예수업을 하는 공예 강사로 그동안 숨겨둔 솜씨를 뽐내고 있다. 서대문구 마을기업 '문화촌사랑방 솜씨'의 이야기다. 솜씨의 여성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마을의 '큰엄마' 역할을 자처한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함께하는 사랑방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들의 작은 바람이 각박한 도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기업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촌사랑방 솜씨'의 사업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 사업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운영하는 교육 사업(천연제품수업, 목공수업, 도예수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솜씨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함께하는여성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며, 시니어 바리스타 어르신들은 카페를 담당해 주시고, 공예 강사인 엄마들은 카페 내에서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공예수업을 합니다.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또 프리마켓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는 동안에는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공방에 나와 준비를 합니다.

저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공예교육을 제공해서 공예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진 마을기업입니다. 또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시간제로 공예교육도 해줍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도 제공해 마을의 취약계층들에게 사랑방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솜씨는 어르신들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솜씨를 열기 전 저(대표)는 공예 강사로 다른 공방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강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사후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함께 강사를 하고 있던 젊은 엄마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결심하고 뜻이 맞는 젊은 엄마 6명이 협동조합준비단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며 지금의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시니어 어르신들과의 인연은 남달랐는데, 제가 평소 다니던 동네 종합사회복지관의 카페가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르신들이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니 복지관에서 카페테리아 운영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시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함께 일해보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성원들이 모여서 2016년 2월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5월에 공방을 오픈했으며, 7월에 드디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업 후
가장 보람될 때와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지켜 주는 게 중요하죠. 저를 포함해 함께 일하고 있는 강사 선생님들은 모두 강사이기 이전에 엄마, 아내, 며느리이기에 함께 시간을 내서 모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항상 같은 시간에 나와 자리를 지켜주시는 시니어 실장님들 덕분에 일정 정도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솜씨 매장을 관리해주고 카페 일을 하는 시니어 실장님들이 프리마켓에 나갈 때 판매하는 물건들도 같이 만들어주시고 강사 엄마들의 수업 준비와 정리를 도와주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같이 하다 보니 우리 실장님들도 커피뿐만 아니라 소품 만들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지금 비누를 정말 전문가처럼 잘 만들게 되셨고요, 다른 한 분은 목공 소품 만드는 솜씨가 대단하세요.

서울시 마을기업에
필요한 지원은...

세무 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세무교육은 장소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업 초기에 직접 찾아가는 세무교육 서비스도 있었지만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 전의 교육이라 그때는 뭐가 어디에 필요한지 잘 몰라서 실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횡수가 적더라도 실제 세금 신고 기간에 직접 찾아와 홈텍스 사용법을 알려주는 식의 실질적인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기업으로서
2017년 계획은...

지금은 이곳이 '카페공방'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왜 '노키즈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출입을 꺼려하는 카페나 식당들도 많잖아요? 저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진 엄마들, 마을의 어르신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꿈꿉니다. 나아가 경력단절 여성과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기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마을기업은 효자손입니다. 마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니까요.



전통문화 지키는 장인들의 반가운 연대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94
02-766-6535, 010-3630-5881

- > 장인이 제작한 전통문화 상품 판매
- > 전통공예 체험강사 양성 사업

옛 것은 촌스럽고 진부하며 고리타분하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반기를 든 이들이 있다. 높은 고층빌딩 숲 사이, 옛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북촌'. 그곳의 장인들이 만든 마을기업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연대가, 사라져가는 우리 옛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켜가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과 함께 반갑다.

기업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과 옛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장인들의 만남으로 결성된 마을기업입니다. 한지공예, 매듭, 목공예 등 문화재 각 분야 장인들의 전통문화 보존과 한국 전통공예품의 보급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 8월에 개장한 매장에서는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장인들의 품격 있는 수공예 기념품을 판매하며, 전통공예의 저변 확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통공예 체험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종로구 북촌지역을 기점으로 활동 중이며, 2016년 1월부터 준비해서 2016년 8월에
협동조합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촌지역은 조선 왕실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대표적인 공방 공예촌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 공간은 현재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방문객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분야
공예인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북촌은 장인들이 모여 있는 곳(공예마을)으로 전통공예를 하고 있는 장인들이 우리
협동조합의 구성원입니다. 모두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장인들로 북촌에 거주하며
공방을 운영 중인 작가들이기도 합니다. 전시 및 교육 등을 수차례 같이 진행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협동심이 생겼습니다.

창업 후
가장 보람될 때와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가 교육을 한 주민들이 나중에 강사가 되어 다른 분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작품을 소중히
여겨줄 때도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 힘들 때는 우리 나름은 수공예품으로 시간과
공을 들여 제작한 작품이나 상품을 인사동 등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외국산 제품과
비교해 평가할 때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번은 중국 관광객이 상품을 사면서 'Made in China'냐고 물어봐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에
필요한 지원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배려를 바라며, 공공기관에서 방문객들에게나
해외 출장 시 우리 전통공예품을 많이 구매해 주었으면 합니다.

신규기업으로서
2017년 계획은...

2016년이 마을기업의 기반을 다지고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2017년에는
기둥을 세우고 온전한 집 형태를 갖출 수 있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해외 벤치마킹을 위해 탐방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마을기업을 통해 교육받은
지역 주민들이 전통공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교사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북촌 장인들의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우리 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느끼고 자긍심을 갖도록 이바지할 것입니다.

마을기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식구, 가족, 함께하는 공동체, 작은 씨앗이 생각납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잇는다

로하스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5 3층(녹번동)
02-387-1007, 010-3722-0239

> EM 및 세안 비누·아로마 천연 스킨로션
교육 프로그램

‘중2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자녀와의 관계 형성은 모든 부모들에게 어려운 숙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해법은 자녀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나 활동을 함께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아닐까? ‘로하스협동조합’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을 돕고,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협동조합이다.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 준 오작교처럼 로하스협동조합이 멀어진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소통을 이어주는 오작교이길 기대해본다.

기업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로하스협동조합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간 소통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가꾸기, 피부 판독을 통해 맞춤 천연 세안제 및 기초 천연화장품 만들기, 토탈공예, 인성교육, 자기소개서 쓰기, 안전교육 및 청소년에게 맞는 성교육 등을 합니다.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현재 은평구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 중인데요, 은평구는 아동·청소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만큼 소외된 학생 수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진로를 모색하고 발견하여 그들의 끼와 재능을 키우주겠다는 마음으로 2015년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과 교육콘텐츠를 운영하는 지역 주민들이 우연한 기회에 아이들 문제로 얘기하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 밖 아이들까지 케어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여져서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후 가장 보람될 때와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열심히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세 번 떨어진 후 마을기업에 선정되었을 때가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외된 아이들을 돌봐주는 단체의 부탁으로 피부 트러블이 많은 아이들에게 피부 관리를 해 준 후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는 마을기업에 세 번 떨어져 사업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할 때였습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6년 차로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중학교에서 우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저희들의 보조 강사인양 행동하는데 참 재밌어요.

서울시 마을기업에 필요한 지원은...

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회계와 협동조합 사무 행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규기업으로서 2017년 계획은...

2017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업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 마을기업의 사업명인 ‘토닥토닥 끼 스쿨’이 우리 사업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10강

서울의 문제를 부탁해!



마을기업, 서울의 문제를 부탁해!

“마을기업을 보거나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을 만들어 얼마나 팔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살피는 것입니다.”

김성섭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이사장

4 15 502호

n/maeulse
n/maeulse
se
mail.net

자
705, 706, 720
7720
문명07 외

도시에서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삭막한 도시의 상징 서울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이 가당키나 할까?

그럼에도 이 무모한 도전에 온 에너지를 쏟는 이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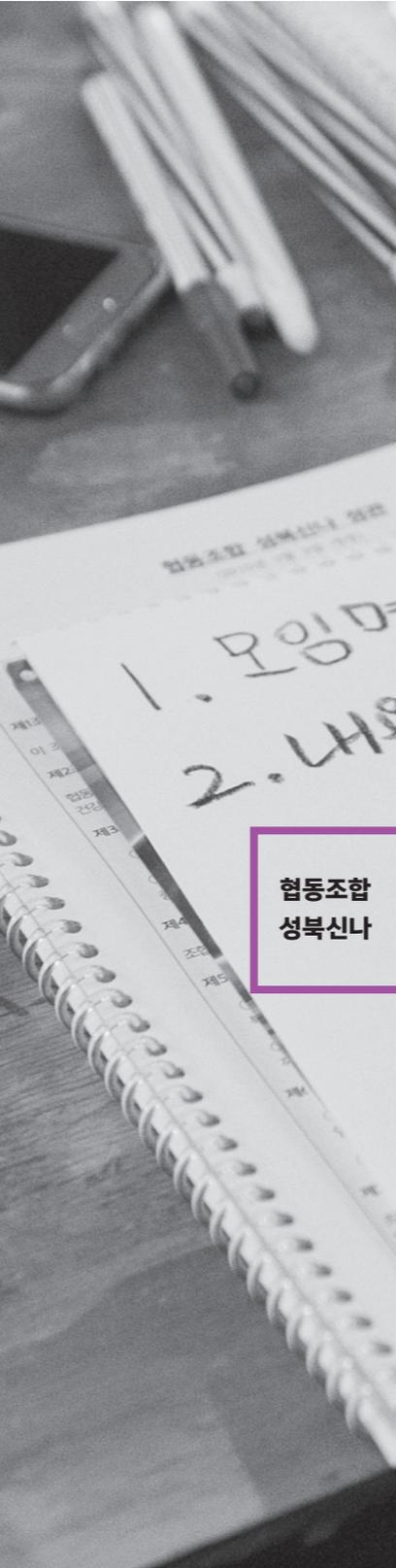
마을기업으로

사는 이야기

각박한 도시 서울에서 마을기업을 운영하며 공동체 회복을 꿈꾸는 그들이 사는 법을 들여다본다.



우리동네
나무그늘
협동조합



협동조합
성북신나



참손길
공동체
협동조합



봉제산
방과후
협동조합

카페에서 마을로의 확장

우리동네 나무그늘
협동조합

☎ 02-6408-5775
🏠 blog.naver.com/mapotree
📌 maponamu



마을기업을 운영하며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도시에 '마을'을 만드는 일이다. 마을기업이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는 어긋난 함수관계지만,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도시의 각박함을 생각하면, 이 아이러니한 전제는 이따금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한쪽은 이대 상권과 맞닿아 관광객과 학생들로 붐비지만, 타원형으로 깊게 파고든 반대쪽 지역은 조용하고 한갓지다. 그곳에 작은 카페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이 탄생했다.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이하 나무그늘협동조합), 그곳에 가면 마을이 어떻게 움트는지 엿볼 수 있다.



변화무쌍한 이야기

'활짝 열려있습니다. 문턱이 없습니다. 이웃과 소통하면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나무그늘협동조합은 마을카페를 조합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다.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수익을 거두지만, '딱 이거다'라고 정해놓은 사업은 없다. 주인이 조합원이 돼,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면 상근자들이 기획과 홍보를 도와 발전시키는 형태다. 나무그늘협동조합 홍보지의 문구처럼 누구나 들어와 뭉쳤다가 흩어지고 이뤄내고 담아낼 수 있는 곳이다.

박명민 나무그늘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카페 나무그늘을 '플랫폼'이라고 말한다. "카페는 공간을 파는 곳입니다. 커피는 덤이죠.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주는 관계와 서비스가 복합돼 한 잔의 커피가 팔리는 겁니다. 조합원이 같이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자기 필요와 욕구의 기반이 되는 곳이죠." 공간을 통해 마을과 소통하는 그들에게 카페 나무그늘은 베이스캠프이자 전진기지이다.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공간으로 변신하며 그 쓰임새를 완벽하게 해낸다.

공간을 설명하면 이렇다. 우선 '카페 나무그늘'은 커피와 함께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카페를 중앙에 두고 오른쪽에는 사회적경제 물품과 조합원들이 만든 도자기 인형이나 비누를 파는 '희망키움샵'이 있다. 그 맞은편에는 마포구 마을생태계조성단 '다정한사무소'가 공간을 함께 쓰고 있다. 이곳과 카페는 나무 미닫이문으로 분리돼 있는데 이 문을 똑 떼어내고 카페 의자 방향을 바꾸면 음악회를 열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너른 공간이 된다. 이곳에서 '쓰레빠찍찍 밤마실음악회'가 열리거나 영화가 상영된다. 공연 무대에는 동네 주민이면 누구나 설 수 있다.

자, 이제 시선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면 또 다른 나무 미닫이문이 있고,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열린마루'가 나온다. 독립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이곳은 아이들이 들어와 안전하게 놀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자, 새로운 공동체를 인큐베이팅하는 공간이다. 지역 주민들이 배우고 싶은 '생활 밀착형' 강좌들이 열리기도 한다.

카페를 중앙에 두고 왼쪽, 오른쪽의 공간들이 마을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이용된다. 카페 커뮤니티가 주는 '기회'에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함께 궁리하고 도모하기에 이른다. 그게 마을의 기본이다.

공간을 넘어 완성된 도시 마을

도시 속 마을의 속성은 '공간'과 '관계망'이라는 두 가지 필수조건을 갖춰야 한다. 박 상무이사는 카페 나무그늘에 남겨진 수많은 족적들이 얽리듯 깊은 곳에 마을을 탄생시켰다고 말한다.

“농촌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동네가 곧 마을이잖아요. 반대로 도시는 동네는 있지만 인구가 너무 많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동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매개되는 관계망과 허브 공간의 연계가 도시 마을을 만드는 두 축인 거죠.”

박 상무이사는 동네에 위치해 있다고 다 '마을기업'은 아니라고 말한다. 마을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을이 있어야 하고, 반대로 마을기업은 마을의 관계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마을기업과 마을은 서로서로 의지하는 순환적인 관계로 새로운 모임을 인큐베이팅하며, 마을의 역할을 넓혀 나간다.

“2014년에 소금꽃마을넷이라는 네트워크회의를 발족했어요.

나무그늘협동조합이 제안해 만들었죠. 염리동, 대흥동 일대의 22개의 마을 단체와 커뮤니티들이 함께 결성해 다양한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금꽃마을축제를 열어 이웃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박 상무이사는 2011년에 만들어진 나무그늘협동조합이 드디어

“마을 속에 있게 됐다.”고 말한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도시의 한가운데 마을기업을 만들고 소금꽃마을이라는 관계망을 중심으로 단절되지 않는 순환고리를 만든 것이다.



박영민 나무그늘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카페 커뮤니티의 본질은 관계망의 형성이라고 말한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소금꽃마을축제는 소금꽃마을넷에서 준비하고 만들고 있다. 전시마당,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공연마당 등 참여하고 싶은 개인과 단체가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 간다.

마을기업, 마을의 확장을 꿈꾸다

2011년도에 발족한 나무그늘협동조합은 현재 195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20·30대가 45%로 젊은 조합에 속한다. 카페 수익, 조합비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많이 안정화됐지만 조용한 마을에도 젠트리피케이션(낙후 지역에 고급 상업지역이 새로 형성되면서 원래의 거주자들이 쫓겨나는 현상)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건물주가 명도소송까지 낸 상황이라,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어요. 다행히 서울시 시민자산화 1호로 선정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여러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박 상무이사는 마을이란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함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공동체이며, 이런 물적 기반까지도 개인이 아닌 마을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협동이 단순히 옳은 일이 아니라, 생활에 진짜 도움이 된다는 효능감을 줘야 해요. 주차 문제, 골목 개선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등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협동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 연습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마을기업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협동은 높은 수준의 행동이다. 서로 연습하고 신뢰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이뤄지는 곳이 바로 카페 나무그늘이다.

“지난해 나무그늘협동조합은 공동체은행 ‘은행나무’를 만들었어요. 대안금융으로 자금이 필요한 마을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지요. 우리는 마을에서 함께하는 건 생활문화까지라고 한계 짓지 않아요. 마을기업이 경제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무그늘협동조합은 마을기업을 통해 마을을 연습하고, 마을을 만들고 마을의 확장을 꾀한다.

“나무그늘 2호의 형태가 됐든 다른 형태가 됐든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마을을 좀 더 만들려 해요. 염리동을 넘어 마포구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젊은 세대가 마을에 자리 잡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세대교체가 돼야 마을의 순환과 재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은 이런 고민을 계속해야 합니다.”

박 상무이사는 지역에 '새로운 변화 공간'으로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나무그늘협동조합의 카페 커뮤니티는 아래로부터 꿈틀대는 역동을 표출해내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비어있어야 어떤 새로움도,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표류하던 청년, 마을에 닻 내리다



☎ 070-5104-1402
 🏠 sinna.us
 📺 sinna.us

마을에 청년이 남지 않게 되었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마을을 떠났다. 청년이 없는 마을은 활기를 잃어 갔고, 마을을 떠난 청년들도 여전히 정착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유랑하던 청년들이 정주(定住)하고자 마을을 먹었다. 마을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것도 신나게! 그렇게 협동조합 성북신나(이하 성북신나)는 시끌벅적한 정릉시장 끝자리 정릉동에 자리를 잡았다. 연고가 없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 속으로 들어간 후 몇 년이 흘렀다. 얼마 전 만난 그들은 이제 '진짜로' 마을 속에 정착하고 싶다고 말한다. 성북신나 2막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을을 팔아, 마을에 남다
 마을기업 성북신나는 지역 재생과 청년생태계를 위해 다양한 연구, 기획, 교육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청년생태계란 청년의 일자리와 관계망 그리고 협업과 협동을 포함하는, 청년을 둘러싼 환경 전반을 의미한다. 성북신나의 사업 모델은 '마을을 판다(sell)'로 설명할 수 있다. 지역 재생을 위해 지역을 기록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모인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 사업을 한다. 모든 베이스가 마을에 있다. 성북신나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인 웹진 <신나지(story.sinna.us)>는 정릉동의 역사, 문화, 사람, 이야기, 맛집 등을 소개한다. 한마디로 우리 마을을 기록하고 알리는 소식지다. 썸맵(www.somemap.kr)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클라우드 맵핑 웹 플랫폼이다. 이런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 사업을 하거나 전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평생학습관과 함께 '정릉에서 마을하다', '마을에서 예술하다', '마을에서 재생하다' 등의 주제로 5회 차 마을 인문학포럼을 진행했다.

성북신나는 지난해 안산시 단원구 아이들과 함께 '깨알 동네탐사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단원구는 세월호 피해자의 가족, 친척, 이웃이 많이 사는 곳이다. 성북신나는 그곳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까'를 고민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팀을 이뤄 마을을 탐사하고, 기록하고, 그들이 바라는 마을의 모습을 그려냈다. 완성된 '마을상상지도' 안에는 버스킹 공연장도 있고, 청소년 문화거리도 있다. 지금은 아이들 머릿속에만 있는 이 지도가 언젠가는 마을을 재생시킬 기막힌 아이디어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을을 기록하고 상상하고 모여서 만들어 보게 하는 일. 그것이 성북신나가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에 정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관계망이 만드는 힘, 성북신나의 힘
 "마을은 우리 세대가 매력을 느낄 키워드는 아니에요. 저만 해도 공동체란 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향수조차 없어요. 정주성이 보장이 안 되는 대개의 청년에게 마을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오창민 사무국장은 청년에게 '근린'보다 중요한 것은 '취향'과 '지향'이라고 말한다. 취향이 맞으면 몇 시간이 걸려도 가는 게 청년이고, 맞지 않다면 지척의 동네도 외면하는 게 청년이다. 성북신나는 그런 면에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이다. 지역 재생과 청년생태계를 키워드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손 내밀고 손 잡아주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희 조합원이 지난해만 40여 명이 늘었어요. 현재 85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성북신나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이 점이에요. 취향을 공유하는 친구, 이웃, 동료들이 많이 생긴거죠.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조합원 그 자체예요.” 오 사무국장은 성북신나가 ‘관계하는 감(感)’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덕분에 지역 단체와 네트워크도 활발해졌고, 사업도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다. 성북신나는 이런 ‘감’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보다 더 조합원과 함께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할까요? 앞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주인으로 느낄 수 있고,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고 해요. 작년부터 분과모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지역, 젠더 페미니즘 같은 모임을 열어 사무국을 싱글코어 구조에서 멀티코어로 운영할 생각이예요.”

성북신나는 다양한 청년들이 마을에서 다양한 작당을 하는 협동조합이지만 호흡이 느리고 결정도 더디다. 조합원 중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오늘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정릉 2동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오전에 도와주러 갔는데 별로 못 도왔어요. 일은 요만큼인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사실 우리 하는 일이 이래요. 일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관계성은 극대화하는 것. 성북신나는 이런 DNA를 가진 청년들의 공동체인 거죠.”



마을을 기록하고 상상하고 모여서 만들어 보게 하는 일. 그것이 성북신나가 마을을 사랑하고 정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성북신나는 ‘진짜’ 마을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성북신나의 마을 2막

2014년도에 설립된 성북신나가 만 3년을 꼭 채웠다. 큰 걸음을 뗐지만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마을에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일을 했지만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있었어요.”

성북신나가 그동안 해온 사업은 한계가 뚜렷했다. 클라이언트가 정해져 있고, 수익도 일정치 않았다. 매년 새롭게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이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진짜’ 마을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진짜 지역 재생은 마을 안에서 지역 주민들의 집을 수리해주거나, 지역 브랜드 맥주를 만들거나, 매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마을에 동화되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획을 하고 행사를 만들고 하는 일도 좋지만 진짜 월세 내면서 장사하고, 시장 상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회성이 아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닳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마을에.”

물론 지금 하는 일과 다른 영역이라 걱정도 크다. 하지만 중간 단계로 지역 캐릭터 사업을 기획하며 준비하고 있다. 성북신나의 2막은 이렇게 더 마을 속으로, 더 마을에 동화되어, 더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진짜’ 마을기업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그걸 공유하는 청년들과 함께 말이다.



멋진 곳
푸는 약손,
마을
속으로



참손길 공동체협동조합

- ☎️ 사당점 1600-3175
- ☎️ 선릉점 1599-3175
- ☎️ 수원점 031-258-7555
- ☎️ 인덕원점 1522-8622
- ☎️ 청주점 043-293-4322
- 🌐 www.chamsongil.com
- 📧 malgunson.blog.me
- 📌 malgunsoncoop

“엄마 손은 약손”

아이가 배앓이로 잠 못 드는 밤, 엄마는 아이 배를 살살 문지른다. 따뜻한 손의 감촉이 아이에게 전해지면, 어느새 아이는 썩새 깊은 잠에 빠져든다. 사람이 주는 정성은 몸속 멋진 곳을 풀어주는 ‘약손’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석구석에도 멋진 곳이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협동조합인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구 맑은손공동체협동조합, 이하 참손길공동체)도 이런 사회의 멋진 곳을 풀어나가는 ‘약손’들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업이라는 그들에게 드리워진 사회의 편견들을 실력과 자부심, 그리고 협력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미로찾기에서 사방이 막혀 빙글빙글 제자리만 돌던 그들이 ‘약손’으로 멋진 곳을 풀고, ‘협동’으로 우직하게 걸어 나가는,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협동으로 맞선 편견들

참손길공동체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만든 협동조합이자, 동작구 마을기업이다. 2013년 5월에 마을기업 지정을 받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참손길지압힐링센터’를 열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리의 턱처럼 참손길공동체를 둘러싼 사회적 턱들도 많다. 하지만 혼자서는 휘청해도, 함께하면 쉽게 턱을 넘는 것이 우리네 삶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는 실력이 출중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나 침술사 분들이 많지만 일할 곳이 없어요. 대개 동네 어귀에 조그맣게 가게를 내서 혼자서 오는 손님을 받으며 ‘연명’하시죠. 손님이 없다 보니 혼자 밥벌이하기도 쉽지 않아요.”

정경연 참손길공동체 이사장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한 이유를 ‘일자리’ 문제로 풀어 설명한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유보직종이에요. 우리는 서울맹학교에서 2,000시간이나 안마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요. 하지만 마사지 업소가 불법체류자나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 정도의 버락치기 강습으로 불법 안마사를 배출하고 있죠. 이런 불법 마사지 업소의 영업력을 일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따라가지 못해, 실력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뒷골목으로 밀려나고 있는 형편이지요.”

이런 고민들이 모여 서울맹학교 동문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기업 지정을 받았다. 현재는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홍보·마케팅을 하면서 2곳의 직영점과 3개의 프랜차이즈 영업점을 열어 안정된 일터를 확보해나가고 있다.

참손길공동체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꿈의 직장’이다. 직원협동조합이라 다른 일터에 비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턱에 막혀 미로 속을 빙글빙글 돌던 장애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그 턱들을 넘을 새로운 기회를 잡은 것이다.

마을이 거부한 이들, 마을을 돕다

참손길공동체는 조합 설립을 6월에 했지만, 사당점 매장을 연 것은 12월이었다. 설립일과 매장 연 날 사이에 몇 달 공백이 있는 이유는 마을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손길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봄이나 가을에는 거리에 천막 하나를 쳐 놓고 안마를 하기도 한다. 누구나 지치고 힘들 때 잠깐 쉬며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있다.

“한두 달간 했는데 매일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웃음). 어떤 분은 ‘친정엄마가 죽었다고 해도 안마는 받고 가야 해’라고 농을 하시는 분도 있었지요. 안마는 멎힌 곳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없고 화공약품이 내뿜는 공해도 없는 자연치유 대체의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마가 가장 쉽게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손길공동체는 마을 장애인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 근처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센터 ‘문화날개’에서 꾸준한 안마 봉사를 하며, 뇌병변 장애인들의 굳은 몸을 풀어주고 있다.

“안마를 받으러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지역에 뿌리내려 마을 건강을 살리는 안마소가 되고 싶어요. 만약 관공서에 안마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면, 그곳에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고 싶어요. 관공서마다 하나씩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의 손길로 건강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모이고, 배우고, 남기는 일

“우리는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시각장애인의 안마 기량을 증진하는 일 그리고 우리 손으로 안마 아카데미를 여는 일, 이 세 가지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손길공동체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안마치료에 대한 성과가 쌓이지 않고, 관련 연구도 더디게 진행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안마는 우리 조상들의 중요한 치유의학이었어요. 지금은 그 맥이 끊겨 서울맹학교에서만 가르치는데 우리 손으로 안마 아카데미를 만들어 그 맥을 이어가고 싶어요.”

정경연 이사장은 시각장애인이 가진 한계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도움만 받는 존재는 아니라고 말한다.

“결국 우리는 오갈 데 없는 장애인입니다. 누군가의 눈이, 누군가의 판단력이,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손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손길공동체는 안마사에게 가장 행복한 때는 안마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그 ‘삭손’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생각이 닫힌 사람들에게도 닿아, 마을과 사회 곳곳의 멎힌 곳을 풀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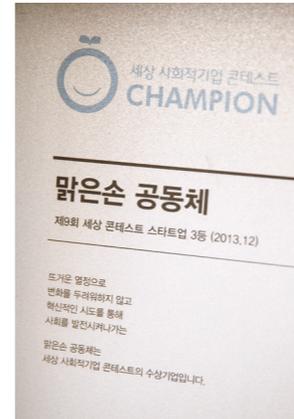
“서너 번 계약 직전까지 가서 파기됐어요. 시각장애인들은 월세를 제때 안 낸다거나, 시각장애인이 우르르 모여 있으면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하는 이유였지요. 안마 시술소가 가진 이미지 때문에 ‘당신들 퇴폐 영업하는 거 아냐?’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어요.”

안마는 칙칙한 매춘의 도구가 아니라 치료와 힐링의 좋은 수단이며, 대체의학에서 개발해야 할 의료 분야라는 걸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야 지금의 매장과 계약할 수 있었다. 마을이 쉽게 이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지만, 참손길공동체는 실망하지 않고 마을에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세상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점지해주는 지원이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저희가 초기 사업비도 임대보증금도 구하기 힘들 때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때 결심했죠. 사업비로 받은 돈을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로 갚기로요.”

사업비 5,000만 원은 시간당 5만 원으로 치면 1,000시간의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값어치다. 참손길공동체는 1,000시간을 마을에서 봉사하겠다고 마음먹고 지금까지 꾸준히 봉사를 해오고 있다.

“마을 경로당, 장애인단체, 지역 행사에 참여해 안마 봉사를 하고 있어요. 또 매장을 개점하기 전부터 동작구 마을축제 ‘동작콩팍’에 참여해 봉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감동 후불제’라는, 안마에 감동한 만큼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에게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마을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 02-2699-1201
 🌐 bongjesan.gongdong.or.kr

예전보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
 집 안에는 건전지만 끼우면 시선을 사로잡는 장난감들로 가득하고, 수십 권의 책이 책장에 꽂혀 있지만, 아이들은 그리 오래 만족하지 못한다. 인내심이 부족해져서만은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마을과 함께 역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마을은 이제 학원 봉고차 차창으로 바라보는 풍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이하 봉제산방과후)를 알리는 홍보지에는 산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다. 아이들은 동네와 뒷동산을 뛰어다니며 있는 그대로의 '성장'을 만끽한다. 마을이 있기에 가능한 그림이다. 산이 있고 이웃이 있는 마을에서 '돌봄'을 함께 꾸려나가는 봉제산방과후를 만났다.



자연 속에 살아있는 아이들

'자신의 속도로 자라는 아이들,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부모, 아이, 교사,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곳' 봉제산방과후는 부모가 주도하는 방과후협동조합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곳이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산하 단체로 등록돼 있으며, 현재(2016년 말 기준) 12가구 15명의 아이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부모조합, 교사조합, 후원조합으로 구성돼 공동의 출자금과 운영비를 통해 생활교육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라거나 '배우고 있다'보다 '생활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봉제산방과후를 가장 잘 설명한다. 봉제산방과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글처럼 아이들은 표준화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속도로 자란다. 아이들은 학원 봉고차를 타는 대신 터전에 모여 태양과 바람과 흙을 마음껏 느끼며 스스로 '생활'한다. 그렇다고 방과후 공간(이하 터전) 안에서만 자라지 않는다. 마을과 관계 맺기를 통해 동네 또한 삶의 터전이 된다. "아이들에게 마을이란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길도 다 알고 놀이터에 가면 대충 아는 얼굴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죠. 어딜 가도 위험하지 않은 곳이 바로 마을입니다."

김경순 봉제산방과후 이사장은 마을이 함께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미션이라고 설명한다. 마을과 관계 맺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을의 비빌 언덕을 마련해주는 일이다. 봉제산방과후는 이를 위해 동네 주민에게 항상 문을 연다. 배우고 싶은 것도 동네카페에서 배우고, 명절에는 아이들이 직접 동네에 떡도 돌리고, 붓글씨로 새해 인사를 써 골목길에 붙이기도 한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화곡동에서 제각각 살던 타인이 이웃이 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게 됐다.

방과후 마을기업에서 지역으로의 확장

"서울시 강서구와 양천구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딱 하나 있어요. 공동육아를 위해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형편이지요.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어요. 이곳은 완전 주택가이고 아파트도 별로 없어서 아이가 6, 7세가 되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든요. 주택가가 가지는 교통 문제, 엄마 아빠 없이 아이 혼자 다닐 수 없는 불안감이 작용한 거죠." 맹모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고사가 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이사를 한 맹모의 열정을 칭송한 것이다. 여기 맹모보다 더 큰 열정과 노력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을 바꿔내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있다.

“떠나는 아이도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꼭 지역에 남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곳에 자리를 잡아보자. 아이의 오후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을 만들자고 생각했어요.”
 공동육아어린이집협동조합에서 곧 졸업해야 하는 부모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논의를 시작했다. 지지부진한 논의가 진행되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기업 지원 신청을 하게 됐고, 지정을 받게 되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2014년 2월 봉제산방과후가 화곡동에 문을 열었다.
 마을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단초를 마련했지만 공동육아조합 일 외에 교육 사업과 연대 사업을 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짊어지게 됐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마을 속에서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성장하려면 마을을 바꾸는 것이 답이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부담감이 한결 덜어졌다. 봉제산방과후는 조합이 품앗이로 강사 비용을 대며 마을 강좌를 열기 시작했다. 방사능의 위험, 책임기 등 다양한 강좌를 진행했지만, 적극적인 동네 주민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 제목의 강좌 현수막이 마을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저곳은 뭔가 다른 교육을 하는구나’하는 효과가 있었다. 봉제산방과후의 활동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단체가 힘을 합쳐 ‘화곡동 마을회의’라는 상설회의체가 만들어졌다.
 마을 강좌도 몇몇 지역단체와 함께 ‘화곡본동마을아카데미’로 꾸려져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게 됐다. 작은 움직임이 주변을 진동시켜 더 큰 떨림을 만든 것이다.



김경순 봉제산방과후 이사장은 마을이 함께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미션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학원 봉고차를 타는 대신 터전에 모여 태양과 바람과 흙을 마음껏 느끼며 스스로 '생활'한다.

15만 원으로 준비한 마을 축제

봉제산방과후는 어린이날 돈 안 드는 축제를 연다. “앰프 안 쓰면 15만 원으로도 가능해요. 포스터도 우리가 만들고 현수막도 전국에서 제일 싼 데 찾아서 한 장에 만 원에 찍어요. 같이 할만한 단체를 꺾어서 놀이터에 놀이 부스를 세우고, 벼룩시장을 열지요.”
 마을 상설회의체에서 하는 큰 축제도 있지만, 어린이날 행사를 굳이 따로 하는 이유가 있다. 마을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화곡동 지역은 경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어린이날 어딘가로 놀러 가지 못 하는 조손가정이 제법 있다. 그래서 ‘화곡본동 어디 안 간 애들아 같이 노을자’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꾸밈없이 오고 갈 수 있고 주도하고 판을 벌일 수 있는 작지만 열린 행사를 만든 것이다.

마을에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종종 봉제산방과후 아이들이 교사와 놀이터에 가면,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린다. 교사들은 동네 아이들을 내치지 않고, 같이 놀 수 있는 놀이를 구상해 함께 논다. 김경순 이사장은 돌봄이란 개인이 전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웃과 마을이 함께 짊어지는 영역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동네에 자리 잡아서 꼭 방과후협동조합이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동네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해요.”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건 어찌 보면 돌봄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봉제산방과후는 ‘마을이 답이다’라고 생각한다.



마을기업 설립, 알고 준비하자!

매년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개인 및 단체가 늘고 있다. 설립 과정 및 조건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한다면 수고로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마을기업 설립에 대한 엑기스 정보를 지원 기관에서 Q&A 방식으로 정리해보았다.



마을기업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고가자

Q 마을기업은 협동조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마을기업은 조직의 형태가 협동조합 또는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분의 마을기업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통해 마을(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지역성과 공동체성, 공공성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4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지속가능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아닐 경우 자치구에서 시로의 추천 불가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출자자가 5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 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의 출자 권장)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 기준 '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 사회 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상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마을기업 준비 과정, 육성체계를 살펴보자

Q 마을기업 준비부터 선정, 사업 추진까지 과정을 알고 싶어요.

A 우선 전년도 12월에 지원 기관이 선정되면, 다음해 1~2월부터 마을기업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공모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며, 신청 기업에 한해서 현지 조사와 적격 검토를 거쳐 최종 심사 후 마을기업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현장 점검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마을기업을 준비하다보면 어떻게 마을기업이 육성되는지 흐름을 알고 싶어지는 건 당연지사. 준비부터 선정, 사업 추진까지 전체 흐름을 알고 싶다면 서울특별시 공고 및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문을 우선 참고하면 된다. 아래는 마을기업 육성체계를 간단히 정리한 표다.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주체
지원 기관 선정	· 지원 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전년도 12월) · 교육프로그램 신청자 공모(1월)	광역시 기초/광역시
마을기업 교육	· 신규 대상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 운영(~2월) · 2차 지원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2월)	지원 기관 등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2~3월)	광역시
적격 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신청단체 시·도에 추천(3월)	기초
심사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기업 행정자치부에 제출(4~5월)	광역시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 행정자치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 심사(5~6월) ·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7월) · 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7월)	행정자치부 광역시
사업 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 수행(6~12월)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12월)	기초-마을기업 기초-광역시-행자부
점검/평가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18. 2월)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18. 3월)	기초⇨광역시 마을기업⇨기초 마을기업⇨기초



마을기업이 되려면 교육 이수부터!

Q 마을기업 설립전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마을기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을기업 설립전교육'이라고 부르며, 입문·기본·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육 시간은 24시간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상담과 컨설팅을 위해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부터 이수해야 한다. 2017년 시행지침에서는 교육의 효력 기한을 2년으로 하고 있다. 교육의 이수 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마을기업 신청 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교육 이수 효력이 2년을 초과했거나 필수 이수 인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2015년에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마을기업 지원 제도의 변경에 대한 이해와 사업모델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을 위해 재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전교육(2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해야 하고, 우수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의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3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4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롭게 이수해야 한다. 특히 법인 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구분	필수	선택
입문	이수효력 2년 (4시간 무료) · 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 내용) ·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 해당 지자체의 마을기업 지원 내용 · 마을기업 설립 사례
기본	이수효력 2년 (10시간 유료) · 마을공동체 이해 · 마을문제 해결	· 마을자원조사 ·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 마을기업 우수사례(견학) · 공동체 운영 및 관리
심화	이수효력 2년 (10시간 유료) · 마을기업 사업 계획 수립(마을기업 관련 서류 작성 요령) · 재무 기초 · 마케팅 전략	· 기업윤리·인사 및 노무 관리 · 상품 허가 및 등록, 개발(저작권, 특허 등)



완벽한 서류 준비로 깔끔한 마무리를~

Q 마을기업 신청시 법인 설립과 공간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나요?

A 2016년부터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는 법인 설립 및 임대차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마을기업 지정과 관계없이 법인 설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2016년도 심사에서도 법인 설립과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럴 때에 지역의 다양한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정체결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마을기업은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마을기업이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별도 서식)
- 마을기업 회원 명단(별도 서식)
- 정관
- 법인 명의의 통장
-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2차 지원 신청의 경우

- 실적보고서(별도 서식)
- 정산보고서(별도 서식)
- 재무제표 추가 제출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인허가 증명서 사본
-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 기간 명시) 사본
-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마을기업 지원 담당자 알고 가면 편해요!

Q 마을기업 준비부터 선정,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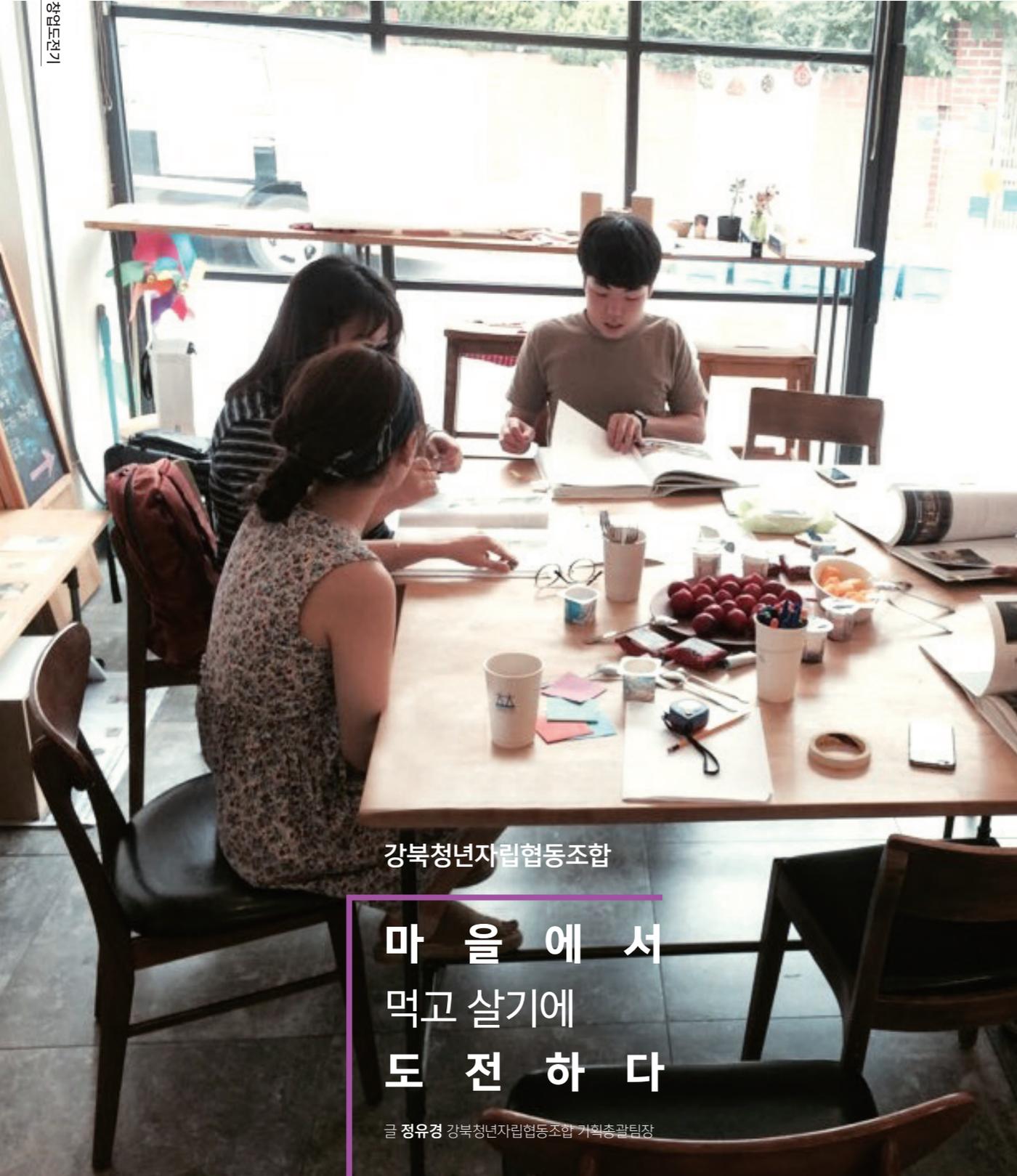
A 네. 준비 과정에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역 지원 기관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준비 중인 마을기업 소재지의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준비를 하다보면 안내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럴 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자들에게 문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 담당자 안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담당 070-4905-4695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330-8298
•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2155-8739
•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901-7254	• 성동구	도시재생과	2286-6610
•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2600-6397	•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2241-3904
•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879-5755	•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2147-2536
•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8	•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125	•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670-4105
• 금천구	지역혁신과	2627-1875	•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95	•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78
•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2091-2484	•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4
•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4976	• 중구	취업지원과	3396-5384
•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820-9664	•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2094-2234
•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3153-8593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

마을에서 먹고 살기에 도전하다

글 정유경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 기획총괄팀장

‘마을’과 ‘청년’의 만남이 이제는 그다지 어색하지 않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을이라는 단어와 청년이라는 단어는 분명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과 마을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색함 보다는 매력 듣는 조합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청년이 마을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을 ‘꽃길’로 볼 수는 없다. 어린 시절부터 마을을 뛰어다니며 이웃에 누가 사는지 꿰고 있던 적이 별로 없는, 도시생활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마을’이라는 것은 개념조차 생소하다. 여기에 ‘비즈니스’를 더하라니 첩첩산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고 자란 마을에서 먹고 살아보겠다며 ‘마을기업’에 무모하게 뛰어든 이들이 있다. 창업 5개월에 접어든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이 바로 그들이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는 이들의 무모한 도전이 ‘무한도전’으로 바뀌는 생생한 과정을 정유경 기획총괄팀장이 전해왔다.

나고 자란 마을에서 먹고 살기

2013년도 강북구 우이동에 생긴 청년커뮤니티 공간, ‘청춘행성209’. 그곳에서 모인 청년들의 고민과 작당으로 지금의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좋아하고 잘 하는 일로 마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다양한 일을 벌인지 3년 째 되는 해, 계속해서 마을에 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했다.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는 제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지역’의 문제와 ‘청년’ 문제에 가까이 있었고, 계속해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를 원했으며, 마을에 남아 공동체로서 연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청년으로 도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였다.

산 넘어 산... 뫼비우스의 띠 같은 준비 과정

우리가 함께 일하는 데는 수평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 시스템이 법인 형태로 적용됐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은 협동조합이었다. 어떤 길이든 비슷했겠지만, 법인 설립의 과정을 겪으며 우리의 결정을 원망할 뻔한(?) 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공증, 설립 등기, 정관...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거쳤던 단어들 중 암묵적으로 금기어가 되어버린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조합원 중에 미성년자가 있어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서류를 뺐(?) 당한 게 여러 번, 협동조합지원센터에 문의를 할 때마다 담당자의 말이 바뀌어서 만들어 놓은 정관을 다시 표준 정관으로 엮기도 했다. 마치 뱀비우스의 띠처럼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으로 시간을 보내자니 참 애가 탔다. 가장 절망스러웠던 것은 아무래도 돈 문제였다. 1,000만 원(지원금의 20%)의 자부담금을 모으는 과정도 우리에게서 힘든 일이었다. 스튜디오와 보증금을 빼고 비싼 약기들을 팔아서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공간 보증금도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총 2,000만 원이 필요한 셈이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의 손가락으로 내 코를 파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더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어찌어찌 온 좋게 해결해서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마을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삼양주민연대 선생님들, 우리의 열정과 가치만 보고 아낌없이 도와주신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선생님들, 장비부터 공사까지 함께 해주신 마을 선배님들과 블랭크 선생님들... 비단 청년들끼리, 우리끼리만 복잡대다가 해낸 일이 아니었다.

승강기 없는 4층짜리 건물의 '4층'

나름 괜찮은 값에 초역세권으로 공간을 얻었지만, 문제는 공사였다. 음악하는 공간이라 방음공사는 불가피한데 돈을 아끼려다보니 대부분을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했고,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 여름을 더욱 잊을 수 없게 만들어줬다. 8월 1일부터 시작한 공사는 9월 10일 오픈파티 이후에도 이어졌다. 오픈파티에서 직접 만든 공간을 소개했을 때, 축하하러 와주셨던 분들께서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진심이 조금 더 담긴) 농담어린 걱정을 하기도 했다.

공사 과정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만 보던 웅장한 25톤 트럭이 게릴라 콘서트의 무대처럼 열리면서 4층까지 손수 옮길 방음벽들로 꽉 차있던 순간이다.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자부한다. 참고로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건물의 꼭대기 층이란, 택배 이용 시 기사님들의 눈에서 보기 드문 레이저가 나오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느리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는 처음부터 실무자로 함께 했지만, 우리 조직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음악하는 사람들이다. 그동안 약기나 오션지만 다뤄왔던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문서를 보고 긴 시간동안 입씨름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가끔 생각해본다.

똑같은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고 나가기에는 딱딱한 게 참 많다. 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던 모습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안건을 뽑아서 회의를 여는 모습들이 더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업도 그렇다. 문득문득 걱정 될 정도로 느리긴 하지만 꾸준히 전진되고 있다. 정신승리의 일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가치를 쫓아 온 것이 천천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왜 꼭 마을이어야 하나요?

단순히 아이템을 펼치기 위해 도전하는 분들께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차라리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마을기업이라는 게 사업성만 들이민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예상하고 소개하는 부분에 약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마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고민을 나누고, 다양하게 실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겨우 진입할 수 있었다.

될 것 같다는 자신감과 함께, 떨어져도 괜찮다며 미리 위로를 하기도 했다. 마을기업은 오래된 것들을 지키면서도 살려내고, 새로운 것들을 붙여 넣으면서도 조심스러워야 하는, 약간은 까탈스럽고 무거운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보다 더 마을에 애착이 있는, 진정으로 마을에서 먹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마을기업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전, "꼭 마을이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YES or NO'로 답해보고, 거기에 다시 "왜?"를 물어보자.

그것에 대한 답도 준비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못 먹어도 GO!'를 추천한다.





마을기업은 이다.

“저에게 마을기업은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빈칸이거든요. 아직 주변에 정체성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걸 봐도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만 가능성도 많기에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게 마을기업이 아닐까 해요.”

박꽃별 광진아이누리에서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부록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 기관
서울시 마을기업 DB



사회적 경제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 격차,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다.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구조화되는 실업과 불안정 고용, 빈부 격차의 심화, 낙후 지역 발생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경험들이 다시 등장했다.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 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014년 5월 14일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서울시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민, 각 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상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 이념과 원칙,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실현을 위한 서울시장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책무, 사회적경제 지원 기관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 근거 및 국제협력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2016년 2월 12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상생으로의 동반성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목표로 세부 실천 과제 16개를 제시한 바 있다.

서울의 사회적 경제는

현재 서울에는 3,4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장기실업자, 장애인, 노숙인, 새터민과 같은 취약취약계층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로 지역과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청년, 고학력 여성, 전문직 은퇴 베이비붐 세대 등이 함께 일하고 있다.

또한 그간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들을 통해 시민들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 이어지는 성과도 확인했다. 반면 시민들의 윤리적 투자와 소비운동과의 결합 부족, 개별 기업 중심의 재정지원과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2011년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기반하고, 시민들의 공동 출자와 집단적 이용(소비)촉진, 이 과정에서 지역 고용과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진화된 정책 목표가 수립되었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서울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000여 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 및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며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유형

구분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자격 여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요 부응	기업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
관련법 (지침)	마을기업 육성지침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특징	· 출자자 및 고용 인력 70% 이상 지역 주민으로 구성(5인일 경우 100%) · 모든 회원은 마을 기업(법인) 출자 및 경영 참여	·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 (1인 1표의 원칙) · 일반 협동조합 (신고제)과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제)	· 배분 가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지정제도 시행	· 구성원 중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1 마을 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지역 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문화·역사적 자산
- **지역 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지정 요건

- 기업성 • 공동체성 • 공공성 • 지역성

※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70p Q&A 참조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1년차 5,000만 원, 2년차 3,000만 원, 예비 마을기업 1,000만 원 한도 사업비 지원
 ※ 예비 마을기업 :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
- **자립 지원** : 경영컨설팅, 교육, 박람회 개최, 판로지원, 멘토링, 홍보·마케팅
-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 : 일상적인 자립 지원 외에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예비 마을기업 지원)/육성 지원(자치구 영업단 운영 및 판로지원), 레벨업 지원단 운영(자립형 마을기업 대상 컨설팅 과제 실행 지원), 서울형 신(新)마을기업 모델 개발지원(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마을기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
 ※ 자립형 마을기업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마을기업 담당) 02-353-3553 | www.sehub.net

2 협동 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정의]

유형 및 종류

- **일반 협동조합** : 조합원 필요 충족,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사업자/다중이해관계자/직원/소비자 협동조합의 4가지 유형
 - 사업자 협동조합(생산자 협동조합) : 사업자 수익 창출을 위한 공동 판매, 자재구매, 브랜드 등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 직원 협동조합(노동자 협동조합) :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 관리, 일자리 마련 등
 -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 이용
-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 공동이익 도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3곳 이상이 모여 설립 가능

지원 내용

- **정책 지원** : 자금 지원(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제품공정 개선기술 개발사업 등), 교육·컨설팅(소상공인협동조합 성장 지원 컨설팅지원,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협동조합 임원교육 등), 홍보 및 판로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사회적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 등 지원과 COOP 협동조합 상품물, 함께누리, 경기행복샵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 : 전문 상담, 성장 단계별 교육, 경영지원, 생태계 조성 및 신규 주체 발굴, 홍보 정보 지원

문의

- (일반 협동조합)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1544-5077 | www.seoulcoop.net
- (사회적 협동조합)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02-365-0330 | www.joyfulunion.or.kr



3 사회적 기업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빈곤, 소외, 범죄 등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 제공
- 혼합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기타형 : 취약계층 고용 비율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 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
자격부여	고용노동부	서울시/관련 부처
법인격	1 조직형태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적 목적 실현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수입 ≥ 노무비 × 50%)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예비사회적기업은 4, 5 항목 해당 없음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신청	연중 접수(격월을 원칙으로 실시)	연중 1~2차 일정 공고
자격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최대 3년

지원 내용

- 직접 지원 :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간접 지원 : 사업 개발비, 경영컨설팅,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융자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세제 및 사회보험료, 우선구매 지원 대상 제외

문의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02-365-0330 | www.joyfulunion.or.kr

4 자활 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유형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 요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1인 창업은 자활기업이 아닌 개인 창업으로 관리)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 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구성원(자활기업 참여자)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조건 충족
- 자활기업 근로일수의 조건이행 기준 충족
*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또는 평균 4일 이상(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 동일성 유지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자활기금)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 한시적 인건비 지원(수급자 : 최대 5년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 자활기업 전환 후 초기 6개월 | 전문가 : 최대 3년)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 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최대 5,000만 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문의

서울광역자활센터 02-318-4140 | www.sjahwal.or.kr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2013년 1월, 서울시와 민간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서울 지역 곳곳을,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일자리를, 사회적경제 조직과 자원을 연결하는 열린 플랫폼을 자임하고 있다. 예비 사회적경제인들과 사회적경제 조직들, 지역·업종·부문협의체와 중간지원 기관들이 교류/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 기반 마련,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전략 사업을 통한 규모화 등을 추진한다.

설립 목적

시민 자조역량 강화를 통한 재정 지원의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여 서울 사회적경제의 발전 지원

지원 전략



주요 사업

-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인재 양성
-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공동작업장 조성,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 사회적경제 공공 구매 시장 조성 및 민간 판로 지원
- 사회적경제 지원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는 서울시의 마을기업들이 함께 모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협업을 통해 개별 마을기업의 미션 수행과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자발적이고 자치적 협동단체다. 2013년 7월, 서울시마을기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2015년 4월 25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33개 회원사가 소속되어 있다.

설립 배경

지역과 주민을 행복하게 할 새로운 경제, '협동과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이 필요한 시기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소득으로 이어지는 착한 경제, 지역복지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지역순환 경제가 마을을 살리고 대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연합회는 '지역순환의 협동경제',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라는 정체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마을기업의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동력으로 이윤보다는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문제 해결, 마을의 삶의 질 향상,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협동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과제 해결, 위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마을기업'과 '마을경제조직'의 연대/협력과 대안·호혜적 경제질서 수립

사업 목표

- 마을기업 간 협동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기반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 마을기업 전문가 발굴/육성
- 마을기업 공동사업 및 유통망 구축

주요 활동

-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
- 마을기업 법제화 촉진 및 정책 강화 사업
- 공동 판로 지원 사업
- 지역공헌 지원단 운영
- 업종별 역량 강화 사업
- 마을기업 정보 공유 강화 및 홍보



	기업명	주요 사업	연락처
강남구	(마)강남스토리	뚜벅이를 위한 강남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마을 관광, 체험 활동	02-547-2295
	내일은청춘바리스타협동조합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청춘카페 운영	02-518-7771
	강남드림협동조합 (구강남친환경집수리 및 재활용협동조합)	강남 친환경 집수리 및 재활용 사업	02-563-0409
	일원동문화사업단	즐거운 일원마을 예체능 활동	070-7579-7791
강동구	국악나루협동조합	문화재 및 유적지를 활용한 교육, 문화, 체험, 공연 관광 콘텐츠 개발	02-470-7147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	한국적 공간개발 디자인	02-484-1649
	아트악세서리(아리아트)	수공예 아트악세서리 제작 판매	02-488-3658
	홍스공방(코이로)	가죽 제품 공동 디자인 제작 판매	070-8955-7785
강북구	놀자씨씨	문화콘텐츠 제작 교육 및 축제 기획	02-429 4014
	함께웃는가게	재사용, 기증물품 판매 및 발달장애인 직업 체험 및 일자리 창출	02-993-8859
	강북행복한돌봄협동조합 (우렁각시)	구인처 개발 관리 및 일자리 연계, 교육, 홍보, 상담 사업을 통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	02-987-1419
강서구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	마을 속 음악 플랫폼, 음악학원 운영을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070-4241-0209
	(사)녹색발전소 (녹색강서환경감시단)	폐현수막, 헌옷 등 폐자원 재활용 사업 및 녹색가게 운영	02-2658-6357
	모해교육협동조합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및 통합 교육, 체험 교육 진행	070-8862-2684
	도시마을방역협동조합	해충 없는 건강마을 만들기	070-4120-6781
관악구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	방과후 교실 운영 및 주민 교육 사업	02-2699-1201
	(주)에덴스푸드	지역아동센터 급식 및 음식 문화 교육, 유기농 도시락 마을사업	02-858-2953
	새터해협동조합	봉제공장을 통한 새터민 자립 및 소통 공간 운영	02-882-9233
광진구	(주)희망을심는나무	화훼 사업을 통한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립 지원	02-2038-0101
	중곡	중곡시장 전통음식 공동브랜드 '아리청정' 개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02-466-5003
	제일시장아리청정협동조합	육아와 평생 교육이 결합된 여성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합 문화공간 운영	070-8263-1211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	경력단절 여성 '용감한 캔디'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02-447-1800

	기업명	주요 사업	연락처
구로구	(사)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재래시장 연계 택배서비스 제공	02-867-4598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한 이주 여성 일자리 창출 및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02-867-4456
	(주)나눔카페연가게(조선족의 친구들 나눔카페 사업단)	나눔카페 및 나눔가게 운영	02-837-254
	(주)나눔가게 (고척시장 상인 연합회)	구로나눔가게 운영 취약계층 의류/침구류 세탁 및 정비 교체 지원	070-8128-6074
금천구	협동조합행복한밥상	행복을 나르는 도시락 사업	02-863-5660
	문화예술협동조합결애	감성충전소 북카페 곁에 운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 활성화	02-852-7424
	배고픈사자협동조합	간식카페 배고픈사자 운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쉼터 제공	02-855-1211
	(주)금천커피로드	금천 지역 커뮤니티 거점 커피로드 '팝콩' 운영 및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02-867-6857
노원구	(주)아이우드	목공 교육을 통한 친환경·재생 가구 생산 및 일자리 창출	02-805-7244
	민들레위커피협동조합	친환경 마을 만들기와 솜씨 및 원예공방 운영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02-895-3379
	건강한농부협동조합	텃밭 조성, 농산물 생산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02-809-6070
도봉구	신나는공동육아협동조합	공동육아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지역돌봄 활동	070-8239-7146
	청구EM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02-935-8046
	목화송이협동조합	친환경 바느질 제품 생산 판매를 통한 자원 재활용 및 여성 일자리 창출	070-7124-9351
동대문구	(주)세상을움직이는힘 장애우드레비전학교학부모회 (세움카페)	지적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희망일터 만들기 세움카페 운영	070-4251-4264
	(주)에듀케어공동체	방과후 아이 교육 사업	070-7642-1407
	방아골사람들	주민들이 만드는 방아골 마을밥집 '여름방학' 운영	02-954-2291
	협동조합감종은공방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한 의류 및 헌 의류 업사이클링 생활소품 제작 판매	070-4643-1986
동대문구	(주)동대문마을기업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웰빙식품 제조 판매	02-2248-1288
	녹색드림협동조합	친환경 생태사업 및 건강나눔 사업	02-3390-4589
	다문화인형극단모두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 사업	02-965-7808
약령시허브그린협동조합	한약재부산물 재활용 친환경 상품화 사업	02-3394-7708	



	기업명	주요 사업	연락처
동작구	희망나눔 동작네트워크(사이시웃)	주민 소통 공간으로서 마을카페 '사이시웃' 운영 및 지역 사회공헌 활동	02-816-6684
	한국학습코치협회	지역연계형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02-3472-7762
	노나매기단체급식협동조합	노나매기 단체급식 협동조합	02-587-2251
	녹색뜰엔 주식회사	성대골 전통 찬거리 사업	070-8105-6873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안마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02-1600-3175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성대골을 중심으로 에너지 운동과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 진행, 에너지 컨설팅	02-3280-6684
마포구	주식회사솔트카페 (염리동주민자치위원회)	천일염 직거래 센터 '솔트 카페' 운영	02-717-6650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성산마을 친환경 복합문화공간 'THE 함께' 운영	02-784-1577
	1인출판협동조합	마포지역 1인 출판사들의 공동연대 사업	02-3142-1012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 운영 및 건강활력 프로젝트, 취약계층 무료 진료 활동	02-326-0611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마포대안공간 우리동네 나무그늘 운영	02-6408-5775
	작은나무협동조합	성미산마을카페 작은나무 운영	02-3142-0414
서대문구	문턱없는세상사회적협동조합	친환경 식당 '문턱없는 밥집' 운영을 통한 로컬푸드, 슬로푸드 운동	02-324-4190
	그리다협동조합(구-위민링크)	여성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통 공간 '어슬렁 정거장' 운영	02-6338-6445
	성미산좋은날 협동조합	마을의 중증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위한 더치커피 제조 판매	070-4154-3757
	구세군두리홈(엔젤스토리)	테이크아웃 커피와 재활용 의류 판매장 운영	02-363-5722
	꽃피는호박골(어울림터)	도시텃밭 생태공원 및 커뮤니티 공원시설 조성	010-5246-3021
	도농원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농직거래 촉진 사업	02-374-8830
서대문구	문화촌사랑방 솜씨	카페 운영 및 교육,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02-394-0509
	콩세알어린이집공동육아 협동조합(서대문부모협동조합)	콩세알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공동체 돌봄 활동	02-6243-2600

	기업명	주요 사업	연락처
서초구	서초구장애인연합회	재활용 의류/폐기물 수거 및 협력업체 납품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02-576-9307~8
	(주)서초나눔장터	재활용 나눔 사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자원 재활용	070-8959-9177
	협동조합점터	지역 사회 일자리창출과 체험학습 사업	070-322-0525
성동구	SSST(주)(성수수제화타운)	신데렐라 수제화 생산 네트워크 공동 매장 운영	02-2118-7093
	마장축산물시장 진흥사업협동조합	마장축산물시장 고기 먹거리 타운 조성	02-2281-4446, 7
	(주)한국통합체험학습센터	지역 사회 역사·생태·문화 자원 발굴을 통한 통합 아동 체험학습 진행	02-921-6384
성북구	(주)동네목수	마을재생을 위한 장수마을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02-747-6004
	(주)키득키득	신나는 작업실 키득키득 맘 키드 운영을 통한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070-7538-3545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장애/비장애 아동의 공동 돌봄을 위한 돌봄터와 치료사업	02-909-4125
	성북동 아름다운사람들협동조합	성북동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체험 학습 진행	02-6249-0101
	협동조합에너지토피아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친환경 리폼 사업	010-2659-7372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	방과후 및 놀터 어린이 돌봄 서비스	02-923-7555
송파구	협동조합 성북신나	지역 재생과 청년 일자리 생애 조성을 위한 문화기획, 지역 연구 및 콘텐츠 개발 활동	070-5104-1402
	어린이안전재단	노후자전거 재활용 및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사업	02-406-5868
	거여1동주민자치위원회 (나누기와보태기)	나눔&행복한 가게 운영을 통한 자원 재활용 및 나눔 문화 확산	010-8443-1510
	마천1동공동사업협동조합	마천1동 공동사업장 운영 및 주택 보수, 생활 공구 대여	070-8162-5000
	나무사랑협동조합	폐원목 리폼을 통한 가구 제작 및 판매로 환경 보호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	02-3432-3000
	양천구	동네발전소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콘텐츠 발굴 및 홍보 활동



	기업명	주요 사업	연락처
영등포구	다우리마을복지회	재활용 의류 수거 및 산업용 걸레로 재가공, 판매	02-835-4761
	신길5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국내산 웰빙 먹거리 '사랑빵 빵사랑' 제조 판매	02-831-5450
	(주)꿈더하기 (사)함께가는 영등포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이 만든 제과·제빵 판매 사업	02-6349-9200
	협동조합노느매기(햇살촌)	노숙인 자립과 자활, 마을 재정착을 위한 희망나눔 활동	070-4386-5050
용산구	행복중심 용산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용산생협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02-713-0615
	협동조합 마을공방 사이	용산마을공방 '사이'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	070-8773-3824
	희망나눔반찬(우리나눔)	우리나눔케어터링 및 도시락·반찬 제조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02-713-7020
	다사리협동조합	전통장 제품 생산 및 교육공동체 활동	010-4087-7987
은평구	아름다운거리조성협동조합	공동작업장 운영 및 상가 마을 클린 환경 캠페인 진행	02-701-8000
	주식회사 마을무지개 (마을n도서관, 마을무지개)	다문화 교육 콘텐츠 및 다문화 음식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	070-7642-0227
	주식회사 물빛마을청국장 (수색동 주민자치위원회)	건강한 우리콩 먹거리 상품 제조 판매	02-372-7600
	바늘한땀 협동조합	전통공예 아이디어 상품 및 생활 용품 제작 판매를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	02-353-1327
종로구	로하스협동조합	청소년 교육 및 인성 함양을 위한 토닥토닥 끼스쿨 운영	02-387-1007
	통인시장커뮤니티주식회사	통인시장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02-722-0911
중구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	북촌한옥마을 전통공예공방 활성화를 통한 마을 경제 확대 및 주민 일자리 창출	010-3630-5881
중랑구	신중부시장협동조합	우수상품 공동 브랜딩 사업 및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02-2272-0022
	이야기가있는사람들협동조합	카페 '이야기가있는사람들' 운영을 통한 장애/비장애인 소통 문화 조성	02-491-7999
	감성마을협동조합	감성까지 풍부해지는 간식가게 운영	02-493-3535